

<닝 프로>란

이번 대학 전체 자유 세미나 「오감(五感)으로 배우는 동아시아 전통 문화」를 EALAI (East Asia Liberal Arts Initiative)와 함께 기획·운영한 것은 과학 연구비 보조금의 특정 영역 연구 「동아시아의 해역 교류와 일본 전통 문화의 형성—영파(寧波, 닝보)를 초점으로 하는 학제적(學際的) 창생」, 내부에서는 「닝보 프로젝트」라 불리며, 이를 더 줄여 <닝 프러>라고 명명한 조직입니다. 이는 도쿄대학에 속하는 조직이 아니라,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으로부터 승인된 5개년 계획(2005-2009년)의 공동 연구이며, 일본 전국의 대학·연구소로부터 총원 약 200명의 분담자·협력자를 얻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닝 프로>에는 34개의 연구반(班)이 있어 개별 연구주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연구반 상호간에 제휴하여, 혹은 그 구성원들이 각각 다른 반원들과 협력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테마 강의는 <닝 프로>멤버이신 사이토우 마레시(齋藤 希史) 준교수가 EALAI와의 가교역을 맡고, 문학부의<닝 프로>멤버 요코테 유타카(横手 裕) 준교수와 공동으로 코디네이터를 맡아 도쿄대학 내외로부터 강사진을 편성해 실현시켰습니다.

<닝 프로>는 EALAI와만이 아니라, 문학부·대학원 인문 사회계 연구과의 차세대 인문학 개발 센터와도 협력해 「문화교류 특수강의」라는 수업을 개강하고 있습니다. 혼고(本郷) 캠퍼스에서 청강·이수가 가능합니다.

<닝 프로> 홈페이지에는 각종 행사 소식이 게재되어 있으니, 부디 확인해 주십시오. 아래에 주소를 기재하겠습니다만, (놀랍게도) 인터넷 검색 키워드 「닝 프로」를 입력하면 곧바로 나옵니다. <닝 프로>라는 명칭을 동료들끼리의 사인으로 할 생각이었던 저로서는 조금은 복잡한 심경입니다.

<닝 프로>대표 고지마 츠요시(小島 毅)

<닝 프로>홈페이지 : <http://www.l.u-tokyo.ac.jp/maritime/>

이메일 : ningbo@l.u-tokyo.ac.jp

Tel & Fax : 03-5841-1518

EALAI 란

리버럴 아트교육(교양 교육)은 폭넓고 균형 감각을 갖춘 지(知)의 획득을 목표로 하는 도쿄대학의 교육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EALAI(East Asia Liberal Arts Initiative)는 리버럴 아트 교육의 동아시아로의 국제적 전개를 지향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경대학, 서울대학교, 베트남국가대학 하노이교와 BESETOHA를 매년 개최하여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공통 교양 교육의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 남경대학에서는 표상문화론(表象文化論) 집중강의를 비롯한 리버럴 아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교양을 위한 북 가이드」의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판 출판 등 발신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ALAI의 또 한가지 중대한 사업은 동아시아로부터의 착신입니다. 이번에는 <닝 프로>와 공동 기획으로 「오감으로 배우는 동아시아 전통 문화」라고 제목을 붙인 체험형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학내외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때로는 다다미 방(和室), 때로는 최신의 네트워크 설비를 갖춘 KALS로 장소를 자유자재로 바꾸어 가며 전개된 연속 강의는 새로운 착신형 강의 모델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좋을 것인가. EALAI 홈페이지에 있는 본 강의 게시판에서는 학생 여러분들의 확실한 지적 흥분이 전해져 옵니다. 자극적인 강의를 편성해 주신 사이토우(齋藤)선생님, 요코테(横手)선생님을 비롯하여 협력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ALAI 집행위원회 카리마 후미토시(刈間 文俊)

「오감(五感)으로 배우는 동아시아 전통 문화」에 대하여

2005 년도 겨울 학기부터 시작된 EALAI 의 테마 강의도 이번 수업을 포함하여 횡수로 7 번째가 됩니다. 특정 영역 연구 「동아시아의 해역(海域) 교류」라는 공동 기획으로서는 작년도의 「바다의 동아시아—해역 교류에서 본 일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대학 전체 자유 세미나라고 하는 형식으로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의 테마 강의는 강사가 교대로 등단(登壇) 하는 릴레이 강의 형식이었습니다. 물론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여타의 수업들에 비해 질의(質疑)응답이나 양케이트를 충실화시켜 활성화를 기도(企圖)해 왔지만, 다수의 인원을 대상으로 한 강의가 되면 자연히 한계가 생깁니다. 2006 년 12 월, EALAI 의 중간 평가를 위해 미국 스워스모어(Swarthmore)대학으로부터 초청한 레이체르 안메르트(Rachel Ann Merz) 교수로부터도 「고정된 의자와 책상」 형식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면 어떻겠는가 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히 소수정원제 세미나 형식의 수업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교양 학부에는 대학 전체 자유 세미나라고 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교실도 코마바(駒場) 캠퍼스에 새롭게 만들어진 코마바 액티브 러닝 스튜디오(KALS) 및 커뮤니케이션 프라자 일본관(和館)을 사용해, 「고정된 의자와 책상」으로부터의 해방을 목표로 했습니다. 형식이나 교실만이 아닙니다. 내용도 「오감(五感)으로 배우다」를 내걸어 실습적인 요소를 충분히 도입하고, 수강생끼리 서로의 소감이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보드(Communication Board)를 웹(web)서버상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홍보했습니다.

이 세미나는 일본에 있어서의 동아시아 전통 문화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가면서 배우는 수업입니다. 서적이나 회화, 차(茶)나 향(香) 등, 중국 대륙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 온 다양한 문물이 일본 문화를 형성해 왔다는 것은 이미 지식으로 배워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로마치(室町) 시대에 복각한 중국서적을 손으로 만지거나 송대(宋代)의 회화와 일본의 회화를 늘어놓고 감상하거나, 차 문화를 도구를 통해서 배우거나 향석(香席)을 가까이 보거나 하는, 구체적인 경험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부 과학성 특정 영역 연구 「동아시아의 해역 교류와 일본 전통 문화의 형성」 및 도쿄대학 교육 프로그램 「동아시아 리버럴 아트 이니셔티브(East Asia Liberal Arts Initiative, EALAI)」의 공동 기획으로 본 세미나를 개설합니다.

약 20 명의 학생들이 이 세미나에 참가해, 동아시아 문화의 실체를 오감으로 접하며 학습해 왔습니다. 흥미진지하게 몰두해 준 이들 학생들의 존재가 있고 나서야 말로 이 수업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각 단원의 내용 뿐만이 아니라, 수강생들의 솔직한 의견교환 및 2 회 제출을 의무화한 리포트에서 3 분의 1 정도를 선택하여 그 내용을 게재하였습니다. 교양 교육이 시도한 하나의 성과로서 향후에 이바지하는 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강사 선생님들, 뒤에서 수업을 도와 주신 RA·TA 대학원생 여러분들, EALAI 스태프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 년 2 월
사이토우 마레시(齋藤 希史)

On “Learning East Asia's traditional culture with the five senses”

The EALAI thematic lecture series, which began in the winter semester of 2005, has been opened seven times, including this time. This was the second joint project conducted with the specific area research project “Maritime exchanges in East Asia” after last year's “Maritime East Asia – Japan seen from maritime exchanges”. However, this was the first time the lecture series was in a seminar format that allowed participation for students from all over the university.

Previous thematic lecture series had been held in the form of relay lectures, with lecturers switching after each lecture. Of course, compared to other classes, time for questions and answers and for student surveys had been expanded in order to stimulate exchange, but for a lecture with large numbers of participants, there are natural limits for what can be achieved. Rachel Ann Merz from Swarthmore College in the United States, who had been invited to the EALAI interim assessment in December 2006, also had suggested moving away from the "fixed chairs and desks" format to a freer one.

So this time, we went ahead with a seminar format with small classes. Fortunately there is a framework in the liberal arts college that allows for seminars that are open to students from all over the university. By using classrooms at the newly created Komaba Active Learning Studio (KALS) at Komaba Campus and the Japanese-style annex of the Communication Plaza, we aimed for liberation from the "fixed chairs and desks" format. Changes were not only made with regard to the classrooms and the format, but also the contents. The concept "learning with the five senses" incorporated many practical elements, and we set up a communication board on a web server, so that the students could exchange thoughts and ideas with each other. For the students the following announcement was made.

The aim of this seminar is to learn in concrete terms about the East Asian cultural tradition of Japan. You have probably already know that a variety of Japanese cultural traditions have been formed through things like books and paintings, tea and incense coming from Mainland China to the Japanese archipelago. However, what if it comes to more tangible experiences, like comparing a Chinese book with its reprint produced in the Muromachi era, appreciating Song dynasty and Japanese paintings next to each other, learning about tea culture through the tools used for tea ceremony or taking a close look at the incense ceremony? The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approved specific area research project "Maritime East Asian cultural exchange and the formation of Japanese traditions" and the "East Asia Liberal Arts Initiative", an education program of the University of Tokyo, offer you this opportunity in a joint project.

About 20 students joined this seminar and learned about East Asian cultural phenomena with their five senses. The class could only succeed because of these highly motivated students. This collection of reports does not only contain the contents of each class, but also the frank opinion exchanges of the participating students, and a selection of about one third of the essays which had been required to be handed in twice during the class. I believe that these results of an experiment in liberal arts education will make a contribution for the future.

Finally I would like to express once again my gratitude to the professors who made this class a great success and also to the research and teaching assistants of the graduate school, as well as the EALAI staff for supporting the seminar behind the scenes.

SAITO Mareshi, February 2008

목차

오리엔테이션	8
사이토우 마레시(齋藤 希史), 요코테 유타카(横手 裕) (도쿄대학)	
양도(香道)	10
제 1 회	겐지향(源氏香)
제 2 회	향로(香爐)만들기과 혼합향
쿠리하라 코우센(栗原 香扇), 다카하시 코우슈(高橋 香愁) (향도지키신류사범)	
갑골문·청동기명문	15
제 1 회	갑골문 읽기
제 2 회	금석문 읽기
오오니시 카츠야(大西 克也) (도쿄대학)	
중국차	20
제 1 회	깁다법의 변천
제 2 회	『다경(茶經)』의 전차 재현
다카하시 타다히코(高橋 忠彦) (도쿄학예대학)	
서적의 역사	25
제 1 회	서적의 역사 (중국)
제 2 회	서적의 역사 (일본)
요코테 유타카(横手 裕) (도쿄대학) 사이토우 마레시(齋藤 希史) (도쿄대학)	
중국요리	30
제 1 회	중국요리의 확산 : 변천과 다양성
제 2 회	최선단 중국요리 : 실연과 해설
후 지앤싱(傅 健興, FU Jianxing) (재단법인 영과려일동향회 이사장, 주식회사 신세계 대표이사)	
중국미술	35
제 1 회	사향고향이의 수수께끼: 동아시아에서 본 동물표현
제 2 회	변용하는 명승: 동아시아에서 본 소상팔경(瀟湘八景)
이타쿠라 마사아키(板倉 聖哲) (도쿄대학)	
정리	40
사이토우 마레시(齋藤 希史), 요코테 유타카(横手 裕) (도쿄대학)	

Contents

Guidance	8
	SAITO Mareshi, YOKOTE Yutaka, The University of Tokyo
Incense Ceremony	10
Lesson 1: The Incense of <i>Genji</i>	
Lesson 2: How to Make an Incense Burner and a Mixed Incense Ball	
	KURIHARA Kousen, Master of the <i>Jikishin</i> school of Incense Burning
	TAKAHASHI Koushu, Master of the <i>Jikishin</i> school of Incense Burning
Inscriptions on Bones and Tortoise Carapaces / Inscriptions on Bronze Ware	15
Lesson 1: Deciphering Inscriptions on Bones and Tortoise Carapaces	
Lesson 2: Deciphering Inscriptions on Bronze Ware	
	OHNISHI Katsuya, The University of Tokyo
Chinese Tea	20
Lesson 1: The Transformation of How to Make Tea	
Lesson 2: Reproducing Boiled Tea in <i>Cha Kyo</i>	
	TAKAHASHI Tadahiko, Tokyo Gakugei University
History of Books	25
Lesson 1: A History of Books in China	YOKOTE Yutaka, The University of Tokyo
Lesson 2: A History of Books in Japan	SAITO Mareshi, The University of Tokyo
Chinese Cuisine	30
Lesson 1: The Spreading of Chinese Cuisine: Its Transformation and Diversity	
Lesson 2: The Latest Chinese Cuisine: Performance and Commentary	
	FU Jianxing, Chief Director of NINGBO NATIVE FOUNDATION JAPAN, President of Shin Sekai CO., Ltd.
Chinese Art	35
Lesson 1: The Mystery behind a Civet Cat: The Way of Drawing Animals from the Viewpoint of East Asia	
Lesson 2: The Beauty Spot Transformed: Seeing the Eight Views of Shoushou from East Asia	
	ITAKURA Masaaki, The University of Tokyo
Closing Comments	40
	SAITO Mareshi, YOKOTE Yutaka, The University of Tokyo

강사소개



사이토우 마레시(齋藤 希史)

SAITO Mareshi

도쿄대학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준교수. 전공은 중국고전문학,
근대 동아시아의 언어·문학·출판.
현재는 중국고전시문이 하나의

세계로 성립한 것의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하고
있다. 주요 저서에 『한문맥(漢文脈)의 근대』(나고야대
학출판회), 『고시기(古詩紀)』(규코서원), 『한문맥과 근
대일본』(NHK 출판)등이 있다.



타카하시 코우슈

(高橋 香愁)

TAKAHASHI Koushu

향도지키신류사범·향석의 강연을
위해 2001년부터 중국을 매년
방문. 북경, 남경, 양주, 소주, 광
주, 항주, 북경인민대학, 남경대

학등을 현재까지 방문했다. 또 신주쿠와 타치카와의
아사히 컬처센터에서 향석교실을 동문의 쿠리하라 코
우센과 매월 주재. 현재도 종가의 직계자로서 ‘후세고’
·향도 전반의 수행은 계속하고 있다.



요코테 유타카(横手 裕)

YOKOTE Yutaka

도쿄대학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준교수. 전공은
중국사상. 연구과제는 유·불·도의
3교 교섭사를 중심으로 한 중국

사상사의 고찰. 주요저서에 『세계상·인간상의
변천』(공저, 사이류사)이 있다. 주요 논문으로
「유명서와 조피진」(『동양사연구』 제 61 권
제 1호)등이 있다.



오오니시 카츠야(大西 克也)

OHNISHI Katsuya

도쿄대학 대학원·인문사회계 연구
과 준교수. 전문은 중국어사와 중
국 고문자. 근년의 연구과제는 상
고 중국어의 문법 연구, 고대 중국

어의 방언의 해명, 전국(戰國)고문자의 해독. 강의에 관
련되는 논문으로서 「「國」의 탄생--출토 자료에 있어서
의 「或」계자의 한자의 뜻의 변천--」(학점초간연구회
편 『초지출토자료와 중국 고대문화』 규코서원)등이 있
다.



쿠리하라 코우센

(栗原 香扇)

KURIHARA Kousen

향도지키신류사범(香道直心流師範).향도의 문화
교류로서 2001년부터 중국을 매년 방문. 북경, 남경,
양주, 소주, 광주, 항우, 남경대학등을 방문했다. 또한
신주쿠와 타치카와의 아사히 컬처센터에서 향석교실을
동문의 타카하시 코우슈와 매월 주재. 현재에도
종가의 직계자로서 ‘후세고’향도 전반의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다카하시 타다히코

(高橋 忠彦)

TAKAHASHI Tadahiko

도쿄학예대학교육학부 교수. 전
문은 중국 문화사. 현재의 연구
과제는 중국의 양차(飲茶)문화사

연구. 강의에 관련된 저서에는 『동양의 차』(편저, 단
코우사)가 있으며, 관련 논문에는 「중국 각다 문화와
다서의 계보」(도쿄학예대학기요 인문사회과학계 I, 57)
가 있다.



후 지앤싱 (傅 健興)

FU Jianxing

재단법인 영파여일동향회(寧波旅日同鄉會)이사장, 주식회사 신세계 대표이사. 긴자양자강재관·긴자대반점·아카사카산노우반점·지유가오카 남국반점에서 수행. 현재 진보초 신세계채관·함형주점·향해조시를 경영.또한 니썬식품, 아지노모토의 각 요리교실에서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타쿠라 마사아키

(板倉 聖哲)

ITAKURA Masaaki

도쿄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준교수. 전공은 중국 회화사. 현재의 연구과제는 남송시대화원화가의 연구, 원대 문인화의 기반, 북송 시대 지식인의 표상. 강의와 관련된 저서로는 『명의 회화』(일본방송출판협회)등이 있으며, 관련 논문으로는 「남송·(진) 이당『좌석간운도책혈(座席間雲圖冊頁)』(타이페이고궁박물관)의 사적 위치」(『미술 역사론총』22호)등이 있다.



코마바 액티브 러닝 수튜디오

(KALS: Komaba Active Learning Studio)

최선단의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사용하고 학생들이 스스로가 복잡한 정보를 정리하고 본질적인 과제를 발견해 내어, 그 해결을 도모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과제에 몰입하는 학습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개설되었다. 본 테마강의에서는 오리엔테이션, 갑골문·청동기 명문, 중국차, 서적의 역사, 중국 요리, 중국 미술의 각 강의와 정리가 이곳에서 행해졌다. 또한 간단한 실습이 행해진 경우도 있었다.



일본관[和館]

과외활동이나 숙박 등을 위해 지어진 시설로, 16조 다다미의 와실이 6실 있다. 본 테마강의에서는 2개의 방을 연결시켜 사용했다. 그리고 향도, 중국차, 중국요리의 실습도 행해졌다. 또한 테마 강의의 번외편으로 ‘국’ 파티도 개최되었다.

오리엔테이션

사이토우 마레시(齋藤 希史), 요코테 유타카(横手 裕)
2007년 10월 15일 (월)

수업내용

「오감으로 배우는 동아시아 전통문화」 개강에 즈음하여, 10월 15일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강의개요 및 강의 방법, 스케줄에 관한 설명이 행해졌다. 본 강의는 실습을 포함한 세미나 형식을 채용하고 있는 관계로 정원수를 25명으로 하고 있다. 오리엔테이션에는 정원을 초과하는 희망자들이 모였으므로, 수강희망이유 및

소속, 학년 등의 밸런스를 감안하여 수강자가 정해지게 되었다. 수강희망이유를 적은 용지의 대부분은 가득 메워져 있어서, 전통문화나 수업방법 그 자체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느낄 수 있었다. (문책:이케다)

커뮤니케이션 보드

질문: 이 게시판은 학생들 여러분이 수업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자리로 했으면 합니다. 먼저 세미나에 대해 기대하는 바나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감상 등 코멘트를 적어 주십시오.

AA said :

미술전반, 특히 일본미술에 흥미가 있는데, 실제 송대 회화와 일본 회화를 나란히 놓고 감상해 보는 등, 「오감」을 중시한다는 점에 이끌려 이 세미나 수강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전통문화」가 지닌 특수성, 그리고 보편성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년·문 III)

야마모 said :

지금까지 수업을 수강할 기회를 놓쳐왔기 때문에 이번 수업을 이수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쁩니다. 고등학교 때 『아사키유메미시』(야마토 와키(大和 和紀)가 『겐지이야기』를 만화화한 것-역자주)를 읽고, 궁중에서 펼쳐지는 고상한 놀이, 특히 향합(여러가지 향을 피우고 두편으로 갈린 사람들이 그 향의 이름을 알아맞히거나 향의 우열을 겨루거나 하는 놀이-역자주)의 묘사에 푹 빠졌었습니다. 아아..이건 히카루 군의 잔향? 그 분이 여기에...? 와 같은 것을 실제 체험할 수 있다는 데에 무척 기대가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년·문 III)

Y.K. said :

저는 민속학에 흥미가 있고, 특히 일본의 연중행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에 레포트를 작성할 때, 「일본의」 연중행사라 해도, 실제로는 중국이나 한국의 풍습이 혼재되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 테마를 읽고는, 일본문화와 동아시아와의 연결성에 대해 꼭 배우고 싶어서 수강을 희망했습니다. 또 실제 체험을 통해서 이해를 심화시키고 싶습니다.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2년·문 III)

TK said :

제가 이 강의에 기대하는 점은, 동아시아 문화를 이해하고, 그 이해에 근거해 중국인을 비롯한 여러 동아시아인들과 유연하게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국어도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중국문화를 알지 못해서 교류상대인 중국인을 화내게 해, 진행중인 계약을 백지로 돌려버린 회사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덧붙여 그 회사원은 우리 대학의 OB 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문화학습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원래 여행을 좋아하는 저는 외국문화에 폭넓게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강의에서는 동아시아 원래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1년·문 I)

Mitsu said :

초등학교 때 『겐지이야기』를 읽고부터, 전통문화의 세계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수강희망서를 제출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에는 가부키를 보러 간 이후부터 전통예능에 상당히 흥미를 가졌고, 대학에서도 그러한 계통의 서클에 가입했습니다.

전통문화·도래문화 속에 무언가 저변에 공통되는 것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많이 전통문화의 「心」과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체험하는 전통문화에 관해서는, 뜻내기 초심자입니다만 잘 부탁드립니다. (1년·문 II)

Veilchen said :

이 수업은 동아시아의 전통문화를 실제로 체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좀처럼 보기드문 기회여서, 수강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와 일본의 연결성과, 일본에 문화가 들어와서 그 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혹은 변화하지 않았는가 라는 점이 현재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년·이 I)

Y*S said :

제가 이 수업의 수강을 희망한 것은 근년 점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지역과의 경제적 및 정치적 연대형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상대의 문화를 이해해 두는 것은 양호한 관계를 구축해 가는 데에 무척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에 더하여, 글로벌화하는 세계 속에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에 자국문화의 루트를 깊이 아는 것은 대단히 의의있는 일이 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수업이 실제로 "체험한다" 는 것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회는 제 스스로는 좀처럼 만들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꼭 참가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1년·문 I)

요코 said :

저는 대학의 어려운 책을 읽는 수업방식, 도서관에 있는 이 또한 어려운 단어의 나열로 되어 있는 책에 질려서, 보다 시각적, 감각적으로 알기 쉬운 수업을 받고 싶다고 생각해 이번 강좌를 선택했습니다. 아무리 책을 읽어서 알았다 한들 「백문이 불여일견」! 동아시아의 전통문화는 낯선 분야이지만, 흥미가 끊어오르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 (1년·문 III)



오리엔테이션 모습

향도(香道)

쿠리하라 코우센(栗原 香扇), 다카하시 코우슈(高橋 香愁)
2007년 10월 22일 (월), 29일 (월)

수업내용

제 1 회 겐지향 (源氏香)

이번회부터 본격적인 수업의 개시이다. 우선 향도, 코마바 캠퍼스 안에 있는 일본관(和館)에 모여, 향식(香席)을 체험했다. 개시시간 전부터 학생들이 모여, 앞에 놓여진 향목이나 장식구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수업에서는 향도의 역사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 향목(香木)의 전래, 일본에서의 향도의 변천에 관해서 언급되었다. 그리고 사범이 향로만들기의 실체를 행해 보여주고 이어서 모두가 조향(組香: 여러 종류의 향을 피우고 그 향을 맞추는 것-역자주)을 체험했다.



이번에 체험한 것은 5개의 향로의 동이(同異)를 맞추는 「겐지향」. 이어서 또 한차례 두개의 향로(香爐)를 돌려, 어느쪽이 「겐지향」에서 맡은 향인가의 추리도 행해졌다. 각자 맡음이 집중하면서, 때로는 사범으로부터 작법지도(작법지도)를 받으며, 여러 가지 향기를 맡고, 고민하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회답을 붓으로 和紙(일본종이)에 적었다.

정정없는 일회승부, 진진하게 향목과 마주하고 있는 사이에 시간은 지나고, 정답을 맞춘 후 수업은 종료. 각자 아련한 향기를 몸에 지닌 채 귀로에 올랐다.

手習	宿木	梅壺	幻	梅笛	若菜	行幸
冬角						
常夏						
篝火						
聖	聖	聖	聖	聖	聖	聖

제 2 회 향로만들기와 혼합향

(合わせ香: 여러종류의 향을 섞은 것-역자주)

지난 시간에 이어 향도의 체험수업. 이번 수업에서는 두 반으로 나누어 향로만들기와 혼합향을 실시했다.

향로만들기는, 이전 수업에서도 사범이 실연(実演)해 주신 것인데, 실제로 행해 보면,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고, 요소 요소에 세세한 작법이 있으며, 정확하게 흠을 만들어 넣는



일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합향은 간진(鑑真:나라시대의 도래승-역자주)에 의해 도래하여, 헤이안시대에 유행했다고 하는 기술이다. 여러 가지의 향가루를 혼합해 환약 모양으로 반죽해서 만들어낸다고 하는 단순작업이지만, 좀처럼 단단해지지 않아 끈기가 필요하다.

묵묵히 작업하고 있는 사이에 어느틈엔가 시간은 지나가 버렸으나, 많은 학생들이 남아서, 자신이 시간 내에 하지 못했던 다른 한 쪽의 작업을 체험하기로 선택했다. 집중력과 인내력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의욕을 가지고 몰두, 충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문책:히라사와)

雲	乙女	絵合	明石	葵	美紫	冬角	桐壺
常夏							
篝火							
聖	聖	聖	聖	聖	聖	聖	聖

겐지향도

5개의 향로의 동이조합은 도합 쉰 두가지 정도가 있다. 겐지향에서는 이를 도면으로 제시, 하나하나에 『겐지이야기』 54첩에서 제 1첩 「桐壺」와 최종첩 「夢浮橋」을 제외한 52첩의 권명을 배당하고 있다(더하여, 본문이 없는 「雲隱」을 제외하고, 「若菜」을 상하 2첩으로 센다). 예를 들면, 최초의 향과 2번째의 향만이 같을 경우에는 오른쪽에서 첫번째와 두번째의 중선을 연결한 「空蟬」, 1·3·4번째가 같고 2·5번째가 같을 때에는 「胡蝶」이 된다.

[실습 광경]

겐지향(源氏香)



「출향(出香)」의 신호와 함께 향로가 돌려짐



향을 맡음



향기의 특징을 메모



향기의 조합을 생각함

향로(香爐)만들기



향로만들기의 도구



향로만들기를 배움

혼합향



조합의 배합을 생각함



반죽해서 둥글게 만들기



혼합향의 요령 듣기

커뮤니케이션 보드

질문 : 자, 여러분은 일본의 향기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또 겐지향 뒤에 나온 두 개의 향로를 바탕으로, 향기의 기억에 대해 자유롭게 논해 주십시오.

takayuki said :

향기를 무언가에 비유해서 기억하자, 라고 하는 체험이 매우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역시 어느 향기도 어딘가 「일본」 풍의 느낌이 들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비유」가 「절」이나 「벚나무 가로수길」 등이 되었습니다만, 이 향기의 바탕이 되는 나무들이 먼 외국산 나무들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불가사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또 겐지향 뒤에 두 개 향로의 향기를 맡았을 때에 특히 그렇게 느꼈습니다만, 냄새의 기억은 때로 문득 선명하게 생각해 냈는가 싶으면, 금방 전혀 생각나지 않게 되고, 잠깐 있으면 다시 무언가 생각나는 등, 참으로 불가사의하면서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I)

y.y. said :

겐지향을 맡을 때에도 그 뒤에 나온 두개 향로의 향기를 맡을 때에도, 향기를 기억하려고 하는 가운데 각각의 향기를 시각적 혹은 미각적인 이미지에 비유하고 있는 자신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향기는 후각을 통해서 「말는」 것이지만, 적어도 제게 있어서 그것은 언어화해서 기억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향기를 맡음으로써 평소 사용하지 않던 후각을 즐김과 동시에, 향기를 기억하도록 집중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상상 속에서 다른 감각들도 예민해져 가는 것, 이것이 향도를 즐기는 방식의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느꼈습니다. (1년·문 I)

MOËT said :

저는 집에서 향(선향 등)을 피우거나 아로마오일을 사용한 적은 있습니다만, 향목의 향기를 체험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향기를 미각에 비유해 신(辛)·감(甘)·산(酸)·함(鹹)·고(苦)의 다섯 종류로 분류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향기를 무언가에 비유하는 것은 무척 어려웠는데, 말로 표현하는 것은 물론, 이미지와 결부시키는 것도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겐지향과 이어서 두개 향로의 향기를 맡았을 때, 「첫번째 향로에서 몰랐다고 해도, 두번째 향로를 맡으면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라는 선생님의 말씀대로 두번째 향로에서는 확연하게 「이건 새로운 향기다」라고 느껴, 스스로도 불가사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향기란 딱히 뭐라고 끄집어 낼 수는 없지만, 향기의 기억이란 것은 분명 있구나 하고 실감했습니다. (1년·이 II)

미즈키 said :

저는 향목의 향기에서 친척의 절에서 맡았던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친척이라고는 해도, 놀러 갈 때조차 절이라는 곳이기에 긴장하곤 했습니다만, 그때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차분하지만, 신경이 예리해지는 것같은 그런 향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겐지향에서는 스스로가 생각한 이상으로 향기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인은 덧없는 것을 좋아한다고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향기도 덧없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향도」란 이름밖에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 된 것도 많이 있어서, 정말 귀중한 체험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1년·문 III)



향목(香木)

질문 : 최근 전통문화 전반에 걸쳐 젊은이들의 입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 계승되어져가기 위해서, 향도에는 어떠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다도나 꽃꽂이 등 다른 전통문화와 비교해서 논해 주세요.

keiko said :

2회 실습이었습니다만, 향도의 매력은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저도 기회가 있으면 언젠가 다시 접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도는 픽션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꽃꽂이도 유명한 이들이 텔레비전에 자주 출연합니다. 바둑이나 장기 등도 만화 등에서도 소재가 되어, 인기를 누리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지명도를 높이는 데에는 향도도 같은 방식으로 미디어를 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겐지향을 예능인이 하는 것을 본다면 모두의 흥미가 끊어 오르리라 생각합니다.

전통문화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제 선입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상류계급의 도락인 것처럼 생각되기에, 일반시민은 그다지 즐길 시간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일 일반시민에게까지 확대시키고자 한다면, 우선 가정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마루바닥이 깔린 방에서도 할 수 있는 형식을 창출해 낸다거나, 모던한 향향아리의 라인을 선보인다거나 한다면 새롭고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지금까지와 같이 전통적인 향도를 장래에 전달하고자 한다면, 부모자식간에 함께 참가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여건이 허락할 때마다 개최한다면, 조금씩이나마 지명도가 높아지고,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자기 자식들에게 체험시키려 하지 않을까요? 전통문화란 원래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문Ⅲ)

Y.K. said :

웬지 제 주위에는 향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만, 다도, 꽃꽂이에 비해 지명도가 낮은 것은 분명합니다. 다석을 체험할 기회는 있어도, 향석을 체험할 기회는 우선 없습니다. 또, 꽃꽂이는 체험할 기회는 적다 해도, 꽃이라는,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남으니까 책 등으로 소개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다도나 꽃꽂이는 향도에 비해 지명도가 높은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명도를 높이면 향도를 즐기는 이들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 작업을 간략화하는 등 향도에 친숙해지기 쉽게 고안할 필요가 있겠지요. 예를 들면, 수업에서도 누군가가 이야기했습니다만, 반죽한 향이나 향목을 향로에서가 아니라 아로마 병에 넣어서 사용하는 등,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고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금전면의 문제도 조금은 해결됩니다. 형태를 무너뜨리는 것에는 저항감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향도에 친숙해지기 위한 방법이므로, 흥미를 가진 사람은 자연히 전통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년·문Ⅲ)

야마모 said :

여러분들도 썼다시피, 역시 지명도가 낮다는 게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 이 수업에 참가하기까지 향도라는 것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다도나 꽃꽂이는 일본인이려면 누구든지 알고 있는데 반해, 향도는 알려지지 않은 것일까. 이는 「향기」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나 주관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회의 과제에서도 접했듯이, 향기라는 것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고, 더구나 개인에 따라 그 표현방식이 전연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어라 말할 수 없는 향기」 등의 추상적인 표현이 되어 버립니다. 때문에 향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훌륭함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아닐까요. 또한, 다도나 꽃꽂이와는 달리 향도의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방송할 수 없다는 점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의 아름다움은 전해져도, 가장 중요한 향기가 전해지지 않을 테니까요.

글쎄요, 지명도를 높이는 데에는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는 것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도대체 왜 실리지 않은 걸까요? (2년·문Ⅲ)

미즈키 said :

확실히 향도는 다도나 꽃꽂이에 비해 우리들에게 있어 먼 존재인 듯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다루는 다도나 꽃꽂이와는 달리, 향기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대로 한다는, 시작부터가 어려운 점도 그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향도를 체험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그 매력을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년·문Ⅲ)

갑골문·청동기명문

오오니시 카츠야(大西 克也)

2007년 11월 5일 (월), 12일 (월)

수업내용

제 1 회 갑골문 읽기

이번 강의는, 은왕조 시대의 갑골문을 테마로 이루어졌다. 우선 갑골문이란 무엇인가 라는 점에 관해서, 은왕조에서 성대히 행해진 갑골점의 내용을 적은 것이며, 점을 칠 때 사용한 갑골에 직접 새겨졌다는 것, 대체로 은대 후기에 한해 볼 수 있다는 것 등의 설명이 행해졌다.



다음으로, 갑골에 기록된 문자가 고대 문자자료로서 세계에 알려지게 된 20세기초 이래의 갑골문자 연구사가 거론되었다. 이어서 갑골이 어떻게 작성, 사용되었는가 하는 해설이 있는 후 갑골의 사진을 이용해서 갑골문을 추적하는 실습에 들어갔다. 실습 후에는 각 문자 및 문장의 의미에 대해 해설을 듣고 강의는 종료되었다.

(출전) 張秉權『殷虛文字丙編』中輯(二)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1965年

제 2 회 금석문 읽기

이번 강의는 금석문을 테마로 했다. 우선 금석문이 구조되어 있는 청동기에 관해서, 청동기의 종류와 역사, 금석문을 써 넣게 된 시기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다음으로 각자 배포된 자료를 이용해 금석문을 추적하는 작업을 행하고, 각 문자와 문장에 관해 해설을 들



었다. 이어서 금석문의 서체를 금석문과 거의 동시기에 사용된 갑골문의 서체와 비교하는 작업이 행해졌다. 그리고 갑골문에 비해 금석문 쪽이 후세의 문자와 더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 이는 새겨진 문자와 필사된 문자와의 차이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문책: 이케다)

(출전) 樋口隆康『食器』泉屋博古館、1983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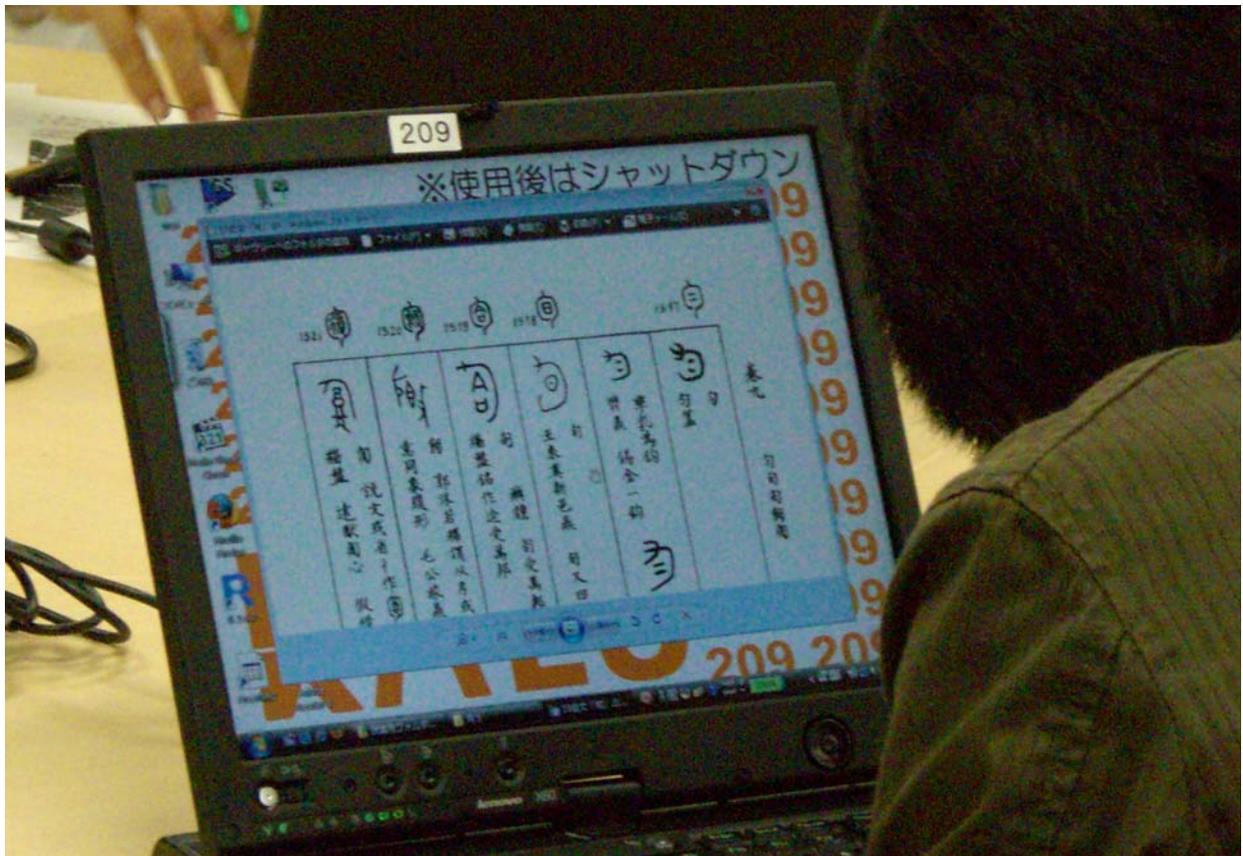


갑골문 추적하기

[실습 상황]



KALS 의 기능을 십분 활용한 강의 풍경



PC 조작을 하면서 강의를 청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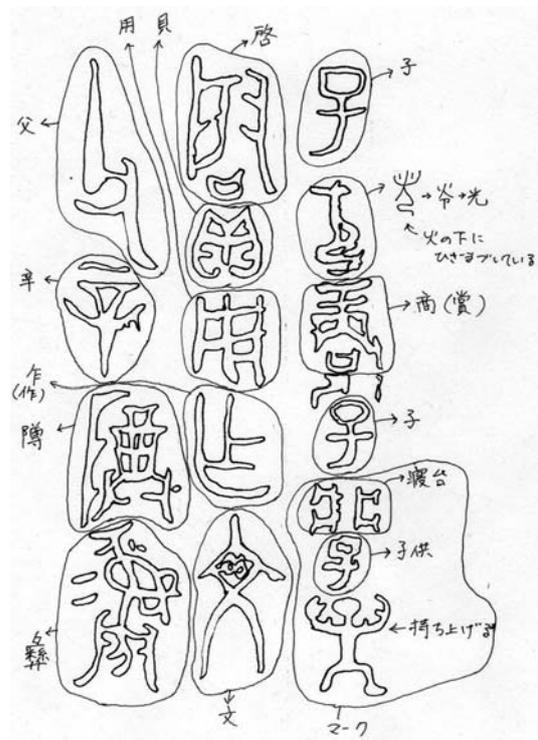


금석문 추적하기



금석문

(출전) 『殷周金文集成』第11冊、中華書局1992年



추적한 금석문과 그 의미

커뮤니케이션 보드

질문 : 이번의 표제는 바로 「갑골문이란 무엇인가」이다. 개설적, 사전적인 설명은 불필요하다. 모사에 접해보고, 문자를 추적하고, 그 내용을 해독한 경험에 기반하여, 현재 여러분 안에 있는 갑골 혹은 갑골문의 이미지를 말해 주었으면 한다.

takayuki said :

이번 시간에 갑골의 모사를 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느꼈던 것이, 생각했던 것보다 「귀여운」 것이로구나 하는 감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옛 문자, 한자의 기원, 점 칠때의 도구 등을 듣고 교과서의 사진을 보았던 때 이래로, 아주 커다란 거북이의 등에 엄숙한 내용이 세련되지 않은 멋없는 문자로 새겨져 써 있으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모사는 손바닥 정도도 되지 않는 크기에, 귀여워 보이는 문자가 쓰여져 있는 것이어서, 더구나 그 내용은 날씨라는, 알기 쉬운 것이었기에 웬지 맥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강의를 돌이켜보는 가운데 선생님께서 「문자는 그 옛날, 사람과 하늘을 이어주는 신성한 것이었다」고 하신 말씀이 인상적으로 다가 왔습니다. 날씨든 정치든 어떻게 해서든 하늘에 의향을 묻기 위해 멀리서 거북이를 들여와 진지하게 문자를 새겼던 거라고 생각하니, 갑골문은 현재의 문자와는 상당히 다른, 특별한 존재였구나, 하는 정말 불가사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골문이란 「현재 문자의 기원이면서 지금의 문자와는 다른 신성한 존재」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1년·이I)

요코 said :

갑골문 모사. 실행해 가는 사이에 오른쪽 왼쪽 한줄은 비슷한 단어가 써 있구나 하고 누구라도 눈치채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프린트가 약간 선명하지 않았다고는 해도 여러가지 점의 징후가 들어 있어서 어느 것이 문자이고 어느 것이 금이 간 부분인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현재의 한자와 닮은 문자를 해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은 문자를 보고 한자를 예측해보라 말씀하셨지만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점 가운데 재미있었던 것은, 점의 결과도 기록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왕의 점이 빛나갔다 해도 그대로 진실을 기록하는 것은 왕<천(天)이라는 도식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지금의 문자와는 좌우 반대의 문자가 몇 글자인가 있었던 점도 재미있었습니다. (1년·문III)

타이시 said :

갑골문자. 세계사 교과서에서 배울 때에는 흠, 문자로군, 문자가 있었구나, 굉장하네, 정도의 감상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번에 갑골문자가 거북이 등에 쓰여진 것을 처음 보았을 때 그런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진부한 난관돌파이긴 했지만 역시 실물을 보니 전혀 다르더군요. 당시 사람들이 어떤 기본으로 일기를 점쳤는지, 분명 꽤나 막다른 골목에까지 몰린 상황에서 최후의 희망이랄까, 바램 같은 것을 점치는 데에 답았거나 혹은 연중행사의 일환 같은 축제에 부수적인 운대 시험같은 것이었거나 했겠지요. 어떤 상황이었든간에, 고대인들의 뭐랄까, 역시 진부한 표현 밖에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싫습니다만, 고대인들의 소박함, 진지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겠는 모호한 그림 같던 것이,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는 한자와 정확히 대응하고 있으며, 문장을 이루고 있다는 걸 실감했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엄원을 느꼈을 때, 문자 자체가 투박한 미적 센스를 지니고 있음을 알았을 때, 고대인들의 생활풍경을 들여다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난관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문III)

가나코 said :

갑골문자는 제가 보기엔 마치 도식처럼 느껴져서 의미를 헤아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현재의 문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여서, 우리들이 평소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있는 글자도 꼼꼼 생각해보면 단순한 선이나 점의 조합이로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갑골문자는 인간이 문명을 지녔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문III)

질문 : 2 회의 수업에서 갑골문과 금석문에 접한 경험으로부터 느낀, 은주시대의 문자와 현대 문자의 상이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논해주길 바란다.

KM said :

은주시대의 문자와 현대 문자의 가장 최대의 차이는 그 무게라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이렇게 문자를 쓰고 있지만, 한 글자를 쓰는데 1 초도 걸리지 않는다. 쓰다 틀리거나, 정정을 하고 싶을 때에는 순식간에 실행할 수 있다. 그에 비해 갑골문이나 금석문은 문자를 쓰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고, 한 번 글로 완성해 버리면 고칠 수 없는 것이 된다.

더하여 은주시대의 문자는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거나, 신하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기도 했다. 문자로 한다는 행위는, 말을 순간적으로 사라지지 않게 보존한다는 점에서는 현대에도 고대에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행위를 행한다는 것의 중요성은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쓰는 수고나 의미 등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고대의 문자는 현대의 문자보다 훨씬 더 중대한 것이었다고 느꼈다. (1년·문Ⅲ)

y.y. said :

현대에는 정부의 기준 작성 등에 따라 문자가 고정되어 있거나 문자는 고정적인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있다(기준·문자가 변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은주시대에는 문자는 훨씬 유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진의 시황제가 문자를 통일한 것을 생각해 봐도, 각지에서 문자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만일 그렇게 문자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었다면, 은주시대에는, 문자는 그것이 지시하고 나타내는 대상과 보다 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을까. 글자형태로부터 그 글자가 나타내는 바를 비교적 쉽게 해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적어도, 모사한 문자 가운데에는 그러한 문자가 많았다) 것은, 문자가 아직 생겨난 직후였다는 게 커다란 이유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이유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1년·문 I)

Veilchen said :

갑골문이나 금석문은, 현대의 한자와 비교해서 그림문자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또한, 은주시대의 문자는 현대의 문자에 비해 곡선적이다. 이들 문자를 비교하면서 느낀 것은, 한자가 시대를 거쳐 추상화되고, 일의적(一意的)이 되었다는 점이다.

갑골문, 금석문은 곡선이 약간 구부러진 상태, 선 길이의 가감 등에 따라 별도의 글자로 인식되기 쉬운 애매함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갑골문의 “十” 과 “七” 과 “甲” 은 모두 十자선으로, 길이의 배합의 가감으로 구별된다고 하는 점이나, 금석문의 글자체의 차이가 정리되어 있다고 하는 점 등이 좋은 예이다. 물론 현대 한자에도 애매함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종선·횡선을 기준으로 해서, 기타 점 등의 요소를 체계화해서 정리할 수 있을 만큼은 일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애당초 갑골문, 금석문도 그림에서 추상화되어 일의적이 되었기(아마도) 때문에 문자로써 인식된 것인 바, 왜 그러한 프로세스가 생겨났는가는 인간의 인지라는 점에서 또한 흥미롭다. 덧붙여 나는 『串』(꼬챙이)이라는 한자를 보면 한자가 표의문자임을 새삼스레 상기하게 된다. (1년·이 I)

AA said :

은주시대에는 문자란 인간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기 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성한 것과 연결되기 위한 도구였던 것처럼 생각됩니다. 때문에, 문자 자체가 신성한 것이며, 한정된 이들만이 그 기술을 알고 있으면 되었습니다. 것처럼 제한도를 높이는 것에 의해, 신성한 것의 외경감을 강화시키고 집단의 종교의식을 밀도높은 것으로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요?

현대에 있어서 문자는 인간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고, 누구든지 읽고 쓰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편으로, 아직도 카톨릭 교회는 라틴어를 중시하고 있으며, 코란은 아라비아어로만 읽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교의도 살아 있습니다. 또, 복수의 기호를 조합한 문자를 만드는 이른바 가루[ギャル: girl의 일본어식 발음, 젊은 여성을 지칭-역자주]문자 등 해독불명의 것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인 문자이기에 때로는 한 문자권(언어권)에 속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배타성을 높이는 것도 쉽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좋겠지만요.

주변에 흘러넘치는 문자 하나하나를 깊이 음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2년·문Ⅱ)

중국차

다카하시 타다히코(高橋 忠彦)
2007년 11월 19일 (월), 26일 (월)

수업내용

제 1 회 깍다법의 변천

원래는 요리용·약용이었던 차는, 당대에 깍다 단독으로 즐기게 되었다. 그리고 찻잎의 맛을 우려내는 시행착오, 기술혁신 뒤에 泡茶法이 생겨나, 명·청대에는 찻주전자를 이용한 壺泡法이 서구에 전래되어 세계로 퍼져갔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이번 수업에서는 주로 당대·송대의 깍다법을 해설했다.

당대에 애호된 깍다법은, 남비에 분말가루 상태의 고행차를 끓이는 전차(煎茶)였다. 아마도 문인들의 기호였을 이 차는, 화려하고 다채로운 다도구를 이용하며, 남비에서 끓여오른 분말을 「꽃」에 비유하는 우아함을 지녔다.

송대에는 고행차 혹은 엽차를 찻종에 넣어 뜨거운 물을 붓는 점다(点茶)가 유행했다. 이 곱디고운 분말은 회어서 검은 다구 안에서 빛을 내는데, 「水痕」「雲脚」 등 산수화에 쓰이는 세계표현적인 언어에 비유되었다.

당시의 기술을 배경으로 각각 다른 깍다법이 애호되고, 다구(茶具)나 미학도 달랐던 것이다.

제 2 회 『다경(茶經)』의 전차 재현

원대에 찻잎을 손으로 비비는 것이 시작되었고, 명대에는 점다법에 대신하여 泡茶法이 왕성하게 되었으

며, 壺泡法이 생겨났다. 이후에는 홍차, 우롱차 등 발효차, 화차나 공차 등도 더해져서 차문화는 폭넓게 퍼져갔다.

이처럼 중국의 깍다법은, 찻잎의 맛을 우려내기 위한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약 천년동안이나 극적인 변화를 이루었으며, 현재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壺泡法은, 당대의 전차법이나 송대의 점차법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 이번 수업에서는 이상



의 깍다법의 변천 역사를 바탕으로 당의 육우(陸羽)가 지은 『다경(茶經)』에 기록된 깍다법을 실제로 행하였다.

실연(実演)에서는, 당나라인이 「꽃」에 비유한 것처럼 끓여오르게 했지만, 그다지 아름다움은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맛은, 그다지 기이하지도 않고, 보통의 차에 조금 소금기가 첨가된 정도라는 게 대체의 감상이었다. 단, 현대와는 달리 그 공정은 대단히 흥미로워서 실연시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되었다. (문책:히로사와)



실연 모습

[실습하는 모습]



①차의 설명



④불을 끄고 상태를 봄



②차가루는 소용돌이의 중심에



⑤「花」



③식은 온수 부어넣기



⑥완성



전차의 시음

中国における喫茶法の類型(概念図)



(작성)다카하시 타다히코 선생님

커뮤니케이션 보드

질문 :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의 『茶の本(차의 책)』을 읽고, 그가 이해한 당의 차문화와 송의 차문화의 특징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어느 정도만큼 정곡을 찌르고 있는가에 관해서, 오늘의 강의를 참고로 하여 고찰해 주십시오. 이와 더불어, 그가 왜 당과 송의 차문화를 각각 Classic 과 Romantic 이라 불렀는지도 상상해 보십시오.

takayuki said :

대학에 들어와서부터 다도를 배우기 시작해서, 「차」라고 하면 곧 말차(抹茶)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이번 강의를 듣고는 차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알게 되어, 한눈에 시야가 넓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과 송의 차문화에 대해서는, 『茶の本(차의 책)』에, 인생과 무의식적인 행동은 늘상 우리들 마음속의 표현이다, 라는 기술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당 시대가 욕우에 의해 차 마시는 법이 체계화된 시대이며, 송대가 보다 예술성을 중시한 시대이다, 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강의에서 배운 각 시대별 차의 작법도, 이들 사교의 표현인 것처럼 생각되어, 각각을 Classic 과 Romantic 이라고 한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1년·이)

미즈키 said :

당에는 고풍의 차를 삶는다고 하는 차문화가, 송에는 분발상태로 해서 끓인다고 하는 차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카쿠라 텐신에게 있어서, 차문화의 변화는 그 시대 정신의 변화도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Classic, Romantic 이라는 말로 차문화에 국한되지 않고 각각의 시대를 살았던 이들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의 차문화를 Classic 이라 표현한 것은, 아직 세련화되지 않았던 거칠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에 비해 차를 분발로 해서 마시는 송의 차문화는, 보다 정교함이 있어, 예능적인 것을 느껴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Romantic 이라는 말을 썼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문Ⅲ)

recoba said :

당과 송의 거리의 모습은 크게 달랐다고 한다. 당은 형식적으로 구획된 거주구에 사람들이 살고, 밤에는 인적도 드문 반면, 송에서는 잡다하게 집이나 상가가 즐비하게 늘어서 밤에도 사람들이 활보하고 다녔다고 한다. 당의 전통적·형식적인 차에 classic 이라는 기준을 매김으로써, 송대의 개방적인 공기 하에서 발전된 새로운 형태의 차, 여흥감 있는 차를 romantic 이라고 말한 것은 아닐까. (1년·문 I)

Mitsu said :

당의 차문화는, 얼핏 보기에 매우 형식적으로 보였습니다. 당대의 전차문화에 접했을 때, 과거(科擧)와 같은 무지 복잡한 당의 정치제도가 웬지 연상되었습니다. 모종의 확고한 관료제도를 정착시킨 첫번째 장기정권이었던 당에는, 모든 것을 형식화해 가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일까, 라고 생각합니다. 오카쿠라 텐신이 당의 차문화를 「Classic」이라고 표현한 것도 무리는 아닌 이야기로, 우리들이 현재 Classic 이라는 말과 조우했을 때 느끼는 형식적인 분위기라든가, 혹은 Classic 이라는 말에 포함된 Class(계급) 라는 어원에 꼭 들어맞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송대의 차문화에 대해서는, 그 끓이는 법이나 손님에게 내는 방식 등이 세련화되어, 현대의 혼풍류전차등에 보이는, 향기·단맛을 즐긴다고 하는 「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텐신은 「Romantic」이라고 표현한 것이며, 여기에는 아로마 세라피적인 요소라든가 마음의 풍요로움을 중시하는 정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수업을 듣고, 당의 차문화와 송의 차문화는 북산문화와 동산문화에 닮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의 수도 장안은 안사의 난에 의해 황폐해지기는 했어도, 안정된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송은 몽골제국에게 수도를 빼앗기고 천도하는 등, 수도마저 전란에 휩싸여 안정감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 때문에 당대에는 화려하면서도 유장하고 격식차린 문화가 자라나고, 송대에는 약간 수수하긴 해도 잠시 마음의 안락을 구하는 문화가 자라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시간 관계상, 원문을 자세하게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여러가지 생각해 봄으로써 비교문화적인 면에서 재미있는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1년·문Ⅱ)

질문: 이번에 배포한 자료 중 주순수(朱舜水)의 문답을 읽고 각다관계의 어휘가 중국에서 일본에 전달될 때의 제문제에 관해 생각해 주십시오.

Y. K. said :

일본도 중국도 같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 번역은 비교적 간단할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문자가 일중간에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역한 채로 어휘를 받아들여지게 되어 버릴 가능성이 있겠지요.

또한, 역시 한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다 해도 대충 알겠다는 식이 되어 버리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순수의 문답 안에 있던 「茶氣」란 말을 대강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TA 담당자께서 번역의 예 가운데 「풍미」라는 말로 분명히 번역하셨기 때문에 무척 개운해졌습니다. (2년·문Ⅱ)

AA said :

대다수의 분들이 쓰신 것처럼, 일중간에 한자라고 하는 공통의 문자(현재는 간체자여서 꽤 다릅니다만)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줄거리는 통하게끔 읽을 수 있으니까 어떤 단어가 중국어에서의 뜻과 일본어에서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각다의 어휘에 관해서 말하자면, 「泡茶」라고 읽으면 웬지 카푸치노 같은, 혹은 일본 다도의 농차와 같은 것을 상상해 버립니다만, 전혀 다른 것이더군요.

각다, 또 중국어와 일본어에 국한되지 않고 어떤 특수한 기법(때때로 그 나라의 전통적인)에는 그 나라의 아주 폭넓은 범위의 문화·관습이 포함되기 때문에, 번역법·전달법은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또 이는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사전지식은 필수이겠지요. (2년·문Ⅲ)

야마모 said :

여러분이 쓴 내용과 같은 것이 되어 버립니다만, 역시 일중간의 공통의 문자인 한자가 정확한 어휘의 이해를 방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는 일중간에 상관없이, 일본인 사이에서의 아주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자신이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할 때, 나 자신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 잘 전달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영어나 아라비아어처럼 일본어와 전혀 다른 언어라면 또 모르되, 한자라는 공통의 틀을 보유하고 있으니만큼, 대충 이해했을 거라고 짐작해 버려, 터무니없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년·문Ⅲ)

KM said :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어와 일본어의 한자가 다르다는 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 원래 일본어에는 없는 한자가 사용되고 있다거나, 일본어 한자와는 의미가 다르거나 하기 때문에, 번역 단계에서 오역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단순히 정확한 번역어를 대입시키면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이다. 예를 들면 「^{니 투}煮る(익히다, 끓이다)」에 대해 말하자면, 일본어에는 「^{유 테 투}煮る」「ゆでる(삶다)」 등의 어휘가 있어서 이들을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중국에서는 「煎」「点」 등의 어휘가 있어, 역시 일단의 구별이 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일본에서의 「煮る」의 구별과 중국에서의 「煮る」의 구별은 다르다고 하는 점이다. 원래 개념이 다른 탓에, 적절한 역어는 없다. 새롭게 역어를 만들던가, 중국어를 그대로 사용하던가, 자상한 설명문으로 고치던가, 의 세 가지 선택이 될 터인데, 여기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물이나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말은 역으로 문화나 개념에 의해 규정되므로, 다른 언어간의 전달은 상당히 어렵다. 우리들은 이러한 개념의 차이를 망각하는 일 없이, 외국어나 그 번역어에 대응해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1년·문Ⅲ)

서적의 역사

사이토우 마레시(齋藤 希史), 요코테 유타카(横手 裕)
2007년 12월 3일 (월), 10일 (월)

수업내용

제 1 회 요코테 유타카: 서적의 역사(중국)

중국 서적의 형태는 다양한 변천을 거쳐 왔다. 문자로 말하자면 갑골문자·금석문에서부터 해서·행서·초서에 이르기까지, 피사체에서는 골·갑라·청동기에서 종이에 이르기까지. 선장본(線裝本)의 체제로 모양을 완성하는 데에도 두루마리·접책 등을 거쳤으며, 복제법도 필사에서 시작해서 활판 인쇄술이 발명되기까지는 오랜 과정이 있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중국 서적의 역사에 관해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해설, 뒤이어 실제로 선장본을 가지고 이 서적의 명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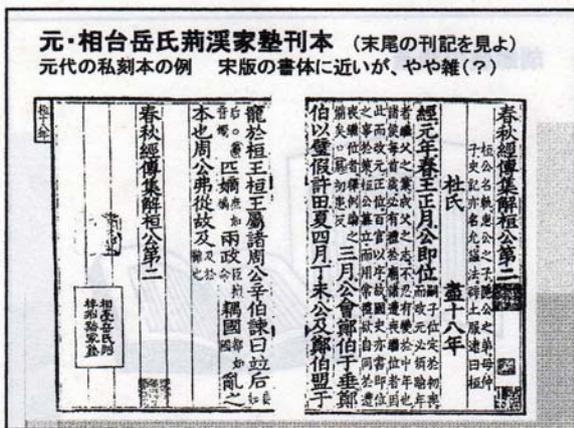
찾아내는 실습을 행했다. 질(帙)·책자(冊子)의 표지·면지(面紙)·서제(序題) 등에 그 서책의 명칭이 쓰여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 안에 쓰여 있는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본문 이외의 부분들은 전래될 때에 당시의 출판자나 소장자의 의도에 따라 개정되기 쉽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이유에서 책의 내용량에 관해서도, 외견상 알 수 있는 책수보다도, 본문중에 표시된 권수가 서지정보로써는 중시된다. 긴 변천의 역사를 거쳐 온 고로 생겨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제 2 회 사이토우 마레시: 서적의 역사(일본)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배운, 중국에 있어서의 서적의 역사를 바탕으로, 일본에서의 서적의 역사에 대해 학습했다.

우선 和刻本(재래식 일본장정의 책-역자주)漢籍을 손에 들고 서지정보를 조사하는 실습부터. 和刻本이란 중국의 서적을 일본에서 복각 혹은 새로이 새긴 것인데, 이 실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각년대 등 원본의 서지정보도 더불어 복각되어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 원본인 당본(唐本:중국에서 전래된 서적-역자주)에 대한 중요자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조선책의 활자에 대한 실습도 행했다. 조선왕조에서는 국왕이 주조활자를 정하고 있는데, 때로 개조를 하여, 세대별로 자체가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실제 조선책을 펼쳐 각 연대별 글자체를 비교해 보면서, 이 책이 어느 시대의 활자에 의해 인쇄된 것인가를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글자는 필경 1777년의 시행활자로 생각되는데, 1772년 혹은 1618년 등 그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글자체도 보여져, 당시 옛 활자도 유통되고 있었다는 것이 추측된다. (문책:히라사와)



(자료제공) 요코테 유타카 선생님

[강의와 실습 환경]



강의풍경①



강의풍경②



보호 및 먼지가 퍼지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커버에 넣어져 있는 和刻本



和刻本 고르기



연대순으로 늘어놓기



조선책의 활자로부터 인쇄 연대를 추정

커뮤니케이션 보드

질문: 휴대성, 읽기 용이함 등등, 여러가지 면을 종합해서 여러분에게 있어 이상적인 책이란 어떠한 형태의 것입니까, 자유롭게 생각해서 의견을 말해 보세요. 수업 이야기와 관련시켜도 좋고, 관련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recoba said :

이상적인 책이란 어떠한 형태의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경우에 따라, 라고 밖에 달리 말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면, 취미로 읽는 소설의 경우, 전철에서 읽는 경우가 많으니까 가볍고 작은 인쇄형식의 책이 좋다. 분량이 많다면 몇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편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연구용으로 사용할 책이라면, 검색하기 쉬운 것이 중요하므로, 정리된 형식이 좋다. 더하여 말하자면 종이에 인쇄되어 있을 필요 없이 워드 문서등으로도 충분하다. 목적에 따라 중시되는 요소가 다른 이상, 이상형을 한가지로 좁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1년·문 I)

Mitsu said :

서적이란 의미에서 저는 역시 종이로 된 매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의 경향 등도 생각한 위에 판단하자면, 신서·문고와 같은 소프트커버판의 작은 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서·문고와 같은, 장정이 간단하고 들고 다니기 편한, 또한 저가의 책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가장 발달해 있어서, 외국인들이 보기에 가장 훌륭한 미디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외국에는 페이퍼백도 있기는 하지만 페 분량이 두꺼운 것이 많은데다, 표지가 종이 한 장이어서 비교적 외견이 상하기 쉬워서 들고 다니는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 일본의 신서·문고는 표지도 상하기 어렵고, 얇은데다가 안의 종이가 상질이어서 페이퍼백과 비교해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최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Gallica」라고 하는 전자도서관 시스템 운용을 개시했습니다만, 그 시스템 덕분에 프랑스 연구, 특히 프랑스 근세·근대의 역사·문학 연구를 하기 쉽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저도 「Gallica」를 비롯해 이런저런 전자저널의 혜택을 입은 것도 있고, 통신 고속화시대인 현재, 특히 서구에서 떨어진 곳에 있으면서 원전을 좀처럼 입수하지 않는 일본에서, 인터넷상에 PDF 파일 등으로 올려진 전자서적은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문 II)

요코 said :

현재 저의 통학가방 안에는 문고가 한 권 들어 있습니다. 통학시에 전철 안에서 읽기 위해서요. 이런 사이즈 라면 혼잡한 전철 안에서도 무리를 해서 읽을 수도 있고, 분발하면 한 손이 자유롭지 않아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작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도 편리해서 저는 문고 사이즈를 좋아합니다. 하드커버는 들고 다니기 불편하지만 집에 놓아 두고 차분하게 들어가며 공부하려고 생각한 때에는 좋을지도 모릅니다.

최근에는 DS 등 게임기로 「유명 사전을 읽자」와 같은 소프트가 있다고 합니다만, 여기에는 약간 위화감을 느낍니다.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선을 그을 수 없다든가, 읽고 있는 도중에 전의 문장을 한번 더 재검토하기가 어렵다거나 하지 않을까요. 더하여 책 실물을 늘어놓고 컬렉션하는 것이 불가능…….(웃음) 책을 모으면 「나의 독서역사」 같아서 좋거든요.

이런 이유로 저는 가격도 가벼운 문고가 가장 마음에 듭니다. (1년·문 I)

Y.K. said :

저도 문고본이나 신서가 이상적인 책의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두루마리 형식의 책과는 달리 맘에 드는 부분만 찾아서 읽기도 용이하고, 작고 가벼워 들고 다니기에도 대단히 편리합니다.

휴대성이나 좋아하는 부분만 읽는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컴퓨터 등으로 읽는 형식의 책도 뒤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미 몇 분인가가 쓰셨듯이 책 안에 메모하기가 어렵고, 손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이 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넣을 수 없는게 싫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호의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손에 넣는다는 것으로 애착 등도 들끓고 몇 번이고 읽게 되기도 하지 않을까요. (2년·문 III)

질문: 동아시아에서 유통한 서적의 다양한 모습이란 관점에서, 직접 서적을 접해 보고 느낀 점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억측이나 폭론(暴論)도 환영합니다.

TK said :

제가 흥미를 가진 것은 동아시아 서적의 공통성보다도 오히려 그 차이입니다. 전혀 같은 내용의 책도, 일본과 중국에서 표지의 두께가 다릅니다. 또 한국의 서적은 사이즈가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을까, 더하여 이제부터 이 차이는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일까. 매우 흥미를 느꼈습니다. 또 서양의 페이퍼북이란 서적과 동아시아 서적간의 차이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도 궁금해졌습니다. (1년·문I)

M.O. said :

몇 권의 서적에 손으로 써넣은 부분이 있는 것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들이 어학 교과서에, 단어의 의미나 해석을 써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도(江戸)시대에도 이 서적을 소유하고 있던 누군가가, 중국책에 몰두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또 이번에 보았던 서적 가운데에는 메이지(明治) 시대의 책도 있었는데, 겨우 백년 동안에 서적의 형태가 매우 다양화 되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만일 백년 후 누군가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를 본다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 혹은 그 즈음에는 서적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여러모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강의였습니다. (1년·문III)

미즈키 said :

실제로 서적을 손에 접해 보고는, 정말로 역사를 느꼈습니다. 종이가 얇아서 찢어져 버리거나 앉을까 걱정이 되어 자연스럽게 손놀림도 신중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도 과거 공부를 위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어디서든지 볼 수 있도록 작은 사이즈의 책이 있었다는 것이 매우 재미있게 생각되었습니다. 그 책을 손으로 집어 보니 옛날의 중국인들이 아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1년·문III)

KM said :

지금까지 오래된 책을 실제로 손에 접해 볼 기회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체험이었다. 그 중에서도 인상에 남은 것이 책에 써 넣은 메모이다. 내게 있어 오래된 것이란 고정된 것, 상하게 해서 안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물론 현대에 있어서 오래된 물건, 즉 자료를 상하게 해서 안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오래된 책도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이용된 살아 있는 것이었구나 하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또 개인적으로는 책에 기입하는 행위는 책을 상하게 하는 듯이 느껴져서 아무래도 서투른 편인데, 인쇄물이라고는 해도 지금보다 생산량도 적고 귀중한 것이었을 시대에도 적어 넣기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은 약간 의외였다. 확실히 적어 넣는 일은 책을 상하게 한다는 해(害) 이상으로 유용한 것이며, 또 이렇게 후세에서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무엇을 생각했는지 등, 대량생산물에서는 결코 해독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기도 하다. 또 서적의 본문 내용도 서적이라는 형태가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일도 후세에 남겨지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책은 매우 친밀하며 가벼운 존재이긴 하지만, 그대로라면 사라져버리고 말 다양한 것들을 남겨주는 위대한 존재라고 느꼈다. (1년·문III)

keiko said :

몇백년이나 된 오래된 서적은, 굉장히 얇은 종이를 사용하고 있고, 종이도 깔끔하게 반질로 접혀져 있어 예상 밖의 것이었습니다. 또 몇 페이지에 걸쳐 구멍(벌레먹은 것일까요)이 나 있어 역사를 느꼈습니다. 세트로 된 책도 있었고, 필경 책은 고가의 것으로 당시에는 지식층이나 부유층밖에 손에 넣지 못했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다루어져 현대에까지 남겨져 있는 거로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1년·문III)



和刻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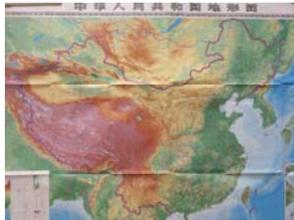
중국요리

후 지앤싱(傅 健興, FU Jianxing)

2007년 12월 17일 (월), 2008년 1월 7일 (월)

수업내용

제 1 회 중국요리의 확산: 변천과 다양성



제 1 회 수업에서는 중국요리의 개요와 변천에 관해, 지도와 유인물을 사용한 설명을 들었다. 강의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중국요리의 이미지는, 실제로는 중국요리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중국요리라고 했을 때 일본인들이 상상하는 식품재료나 조리법 등의 대부분은, 중국요리의 역사 속에서는 비교적 최근의 것이다. 이에 대해 마과두부 등의 요리들 예로 해설이 이루어졌다. 또한 중국요리는 다른 문화로부터 영향을 받아 변화해 온 것이며, 일본을 포함한 근린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더하여 중국요리는 현재에도 각지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이라는 점도 강조되었다.

제 2 회 최선단 중국요리: 실연과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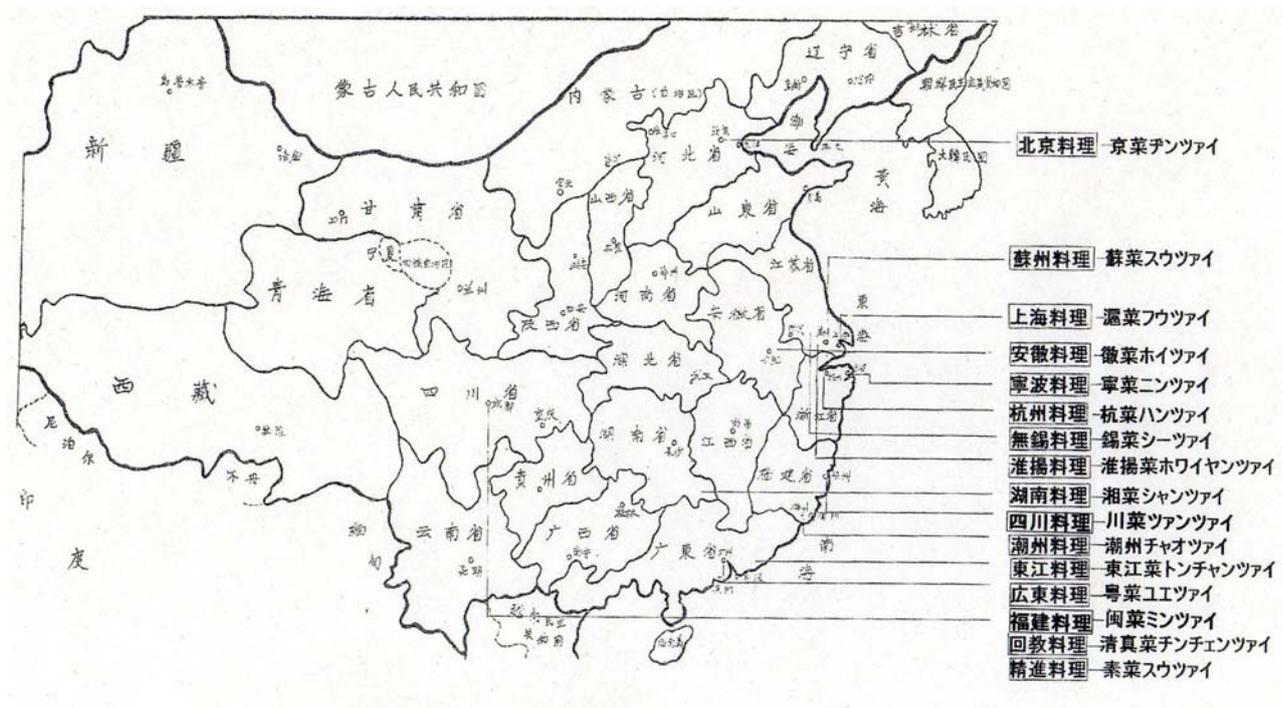
제 2 회 강의에서는 여러 종류의 중국요리를 실제로 만든다고 하는 형식을 취했다. 전자렌지나 IH 조리구를 활용하고, 올리브오일을 풍부하게 사용해서 만들어진 요리는, 중국요리에 대한 편향된 이미지를 뒤집는 것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시금치 나물무침, 가지볶음, 양배추와 베이컨 볶음, 칭자오 로스, 돼지고기 삶은 즙



을 이용한 스프 등의 요리를 만들었다.

수강자들은 선생님의 실연을 보면서 설명을 듣고, 야채를 잘게 찢거나 잘게 썰거나 하는 작업을

통해 조리에도 일부 참가했다. 더하여 완성한 요리를 맛보며, 「중국요리」를 「오감으로 배우」게 되었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리보조나 질문 등을 통한 수강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특히 눈에 띄었다. (문책: 이케다)



중국요리의 구분과 분포
(자료제공) 후 지앤싱 선생님

[강의와 실습 환경]



중국지도를 옆에 둔 강의



조리에 적극적으로 참여



적당한 크기로 썰기



중국식칼에 도전



조리방법을 설명



간단함을 어필



맛보기①



맛보기②

커뮤니케이션 보드

질문: 여러분들이 오래된 역사 속에서 『중국요리란』 이번 강의를 듣고, 이전과 이후,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주기 바란다.

Y.K. said :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들이 중국요리라고 이미지화하는 요리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는 점이 인상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등에서 종종 「중국 4 천년의 역사」 등을 말하면서 (백뮤직으로 징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하면서), 이른바 중국요리가 소개되니까 무심결에 역사가 깊은 것이로구나,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건지도 모릅니다. 또 저도 중국요리는 느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전부터 중화가에 즉 전문점이 있는게 신기했는데, 이걸로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2년·문Ⅲ)

recoba said :

중국요리라고 하면 센 불, 기름, 고추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그러나 센 불이나 기름이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 고추는 긴 역사 속에서 보면 불과 최근에서야 들어 왔다는 것 등을 듣고는 중국요리에 대한 이미지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한다. 특히 인상깊었던 것은, 중국내외를 막론하고, 다른 요리의 영향을 받아 변화를 계속해가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일본요리가 전통을 중시하면서 외국의 일본요리점에 「정통」을 강요하려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생각했다. (1년·문Ⅰ)

Y*S said :

일본에서 중국요리라고 하면 라면이나 만두 등 대중적인 것에서부터 고급중화요리점에 이르면 체비등지나 상어 지느러미 스프 등, 고급 이탈리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가의 고급음식까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웬지 느끼하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 제 자신은 중화요리를 좋아해서 자주 만듭니다만, 마지막에 참기름을 뿌리거나 제대로 볶기 위해 의외로 기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맛은 전체적으로 진한 편이어서 두반장 등도 종종 사용하고 탄탄면 등도 맵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강의에서 식칼을 사용하지 않고도 맛있는 중화요리를 만들 수 있다고 듣고는 정말 놀람과 동시에, 그만큼 자신이 중화요리에 대해 일종의 강한 스테레오 타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중화요리는 훨씬 더 서민적이며 폭넓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년·문Ⅰ)

taishi said :

중화요리는 자주 먹습니다. 중화요리점이 많은 오차노미즈에서 종종 배회하기 때문에 사천요리가 맛있는 곳이나 광둥요리가 맛있는 곳, 점심(点心)이 맛있는 곳을 생각해 내어 열거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번 말씀을 해 주신 후 지앤싱 선생님께서 경영하시는 신세계 앞도, 몇 번을 곱씹어 보며 지나다녔던가. 가난한 예비고 학생으로서는 바라보면서 침을 삼키는 것 밖에 할 수 없었지만, 다음 번에 그 솜씨를 발휘해 주신다는 말씀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 중화요리를 다른 사람들보다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대요리의 특징도 알고 있고 구별도 합니다. 맛있고 없어도 알고요. 그러나 이번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실제로는 중화요리의 표면밖에 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자알 알았습니다. 저는 건방지게도 중화는 기름의 좋고 나쁨으로 맛이 결정된다는가 하는 그런 주제넘은 분석을 음식을 칭찬하면서 맛보는 사람으로써 해 왔던 터입디만, 중화요리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로군요. 후 지앤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것은 「중화에 국경은 없다. 어디에 가든 그 지역에서 맛있는 것을 만들면 중화. 세계 어느 도시에도 중화요리는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요리의 테크닉이나 작법의 영역을 뛰어 넘어, 무언가 커다란 이상과도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원래 중화 자체가 여러 민족들의 혼교의 결과 부상된 요리이며 이제부터도 점점 변해갈 것이라고 합니다. 민족이 많은 것을 반영하여 대륙에서만도 수십 종의 「~요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식재료와 요리……. 대륙은 역시 정말 광대하다는 걸 다시 한 번 인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문Ⅲ)

질문: 조미료, 식재, 조리방법 등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요리는 어떠한 요리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또한 동아시아의 여타 나라들의 요리와 비교해서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recoba said :

기름, 화력, 고추라는 전형적인 이미지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중국요리를 정의하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요리」라고 밖에 달리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중국 안팎의 요리가 상호 융합되어 있어서 조미료, 식재, 조리법 각각에 대해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 요리와 요소 면에서 여러 상이점을 들 수 있겠지만, 이는 동시에 공통점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한다. (1년·문 I)

Y.K. said :

이번에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요리는 제가 이제까지 상상하고 있던 맵고 기름진 중국요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때문에 구태여 중국요리를 정의한다고 하면, 중국인 사회에서 계속해서 만들어져 온 요리, 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정진요리(精進料理:고기가 없는 채소요리-역자주)나 스시와는 전혀 다르지만, 중국요리가 마파두부나 만두만이 아니듯이, 일본요리도 정진요리나 스시만은 아닐 터입니다. 결국 「~」요리와 국명을 써워서 칭해지는 요리는 외국이 그 나라 요리에 대해 갖는 이미지이며 그 나라 실제의 요리와는 다른 경우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2년·문Ⅲ)

Y*S said :

중국요리에서도 올리브오일을 사용한다는 것은 나에게서 꽤 충격이었다. 이걸로는 이탈리아 요리와 똑같지 않은가 말이다. 실제로 베이콘과 양배추 볶음은 완전히 서양풍의 느낌이 들었다. 단지 어느 요리에도 향을 넣고 특히 마늘과 생강으로 확실하게 향을 낸다는 느낌이 들었다. 참기름도 마찬가지로 말이다.

중국요리는 전통에 구애되지 않고 몸에 좋은 것은 좋다고 생각해 새로운 것도 점점 흡수해 가는, 진화하는 요리인 것 같다. 중국 말에 「의식동원(医食同源)」이란 말이 있는데 이야말로 중국요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아닐까 생각한다. 음과 양의 밸런스를 생각해서 먹는다고 하는 발상은, 중국요리만의 독특함일 것이다.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요리와의 비교라면 이는 잘 모르겠다. 다만 중국은 국토가 넓어서 사용되는 식재나 조리법은 지방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중국요리는 「이러한 식재료를 사용한, 이러한 간을 맞춘, 이러한 조리법의 요리」라고 정의하기 어렵다. 각각이 중국요리를 다른 동아시아제국의 요리와 차이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1년·문 I)

Tjutju said :

이번에 중국요리의 특징을 가장 의식한 것은 간맞추기였다. 참기름이나 마늘을 주체로 하는 조미, 혹은 최근 퍼지고 있는 홍콩풍의 조미는, 일본요리의 향신료나 유자 등을 이용한 조미와는 상당히 다르다. 단지 시금치 나물무침 등은 특히 중국요리라고도 일본요리라고도 단정지을 수 없는 음식이었고, 중국요리도 일본요리도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므로 속단은 피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식재료에 대해서도, 어떠한 나라의 것이라 해도 중국의 식재와 아주 색다르지 않은 이상은 사용한다는 점과, 그러면서도 중국독자의 식재도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하는 점의 양 측면이 있다. 결국 중국요리를 틀리지 않고 정의하는 데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져 온 다양한 요리 및 세계각지에서 현지의 풍토에 맞추면서도 중국(의 어딘가의 시대·지역)에 기원을 둔다고 의식되는 다양한 요리의 총체라는 정도 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을 것 같다. (1년·문 I)



시금치 나물무침

중국미술

이타쿠라 마사아키(板倉 聖哲)

2008년 1월 15일 (월), 21일 (월)

수업내용

제 1 회 사향묘의 수수께끼: 동아시아에서 본 동물표현



제 1 회 강의에서는 우선 중국 남송시대에 그려진, 고양이나 개에 관련한 회화에 대해 슬라이드사진을 사용하면서 해설이 이루어졌다. 교재로 사용된

것은 13세기 전반기에 모익(毛益)이 그렸다고 추정되는 「蜀葵遊猫圖」와 「萱草遊狗圖」이다. 이들 그림은 양쪽 다 한 마리의 어미와 네 마리의 새끼를 그린 것으로 상서로운 의미도 포함한, 움직임 있는 구도를 취하고 있다.

다음으로 모익의 회화에 대표되는 듯한 남송원체화풍(南宋院体画風)이 한국 및 일본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한국 및 일본에 있어서의 동물화는, 같은 남송회화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각각 역사 속에서 상이한 방향으로 발전해 갔다. 한국의 경우, 민화에 이어지는 한가로운 분위기로 그려지고, 남송회화에서 그려진 종류의 애완동물이 알려지지 않았던 일본에서는, 영수(靈獸:상서로운 짐승-역자주)를 그린 회화로써 계승되게 되었다.

제 2 회 변용하는 명승:동아시아에서 본 소상팔경(瀟湘八景)

두번째 강의에서는 16세기경 한국에서 그려진 세 폭의 「소상팔경도(瀟湘八景圖)」(동정추월[洞庭秋月], 소상야우[瀟湘夜雨], 연사만종[煙寺晚鐘])를 감상했다. 유리벽 너머로가 아닌, 직접 감상하는 것으로, 수강자들은 미묘한 색채의 질감을 한층 더 감지할 수 있었으



리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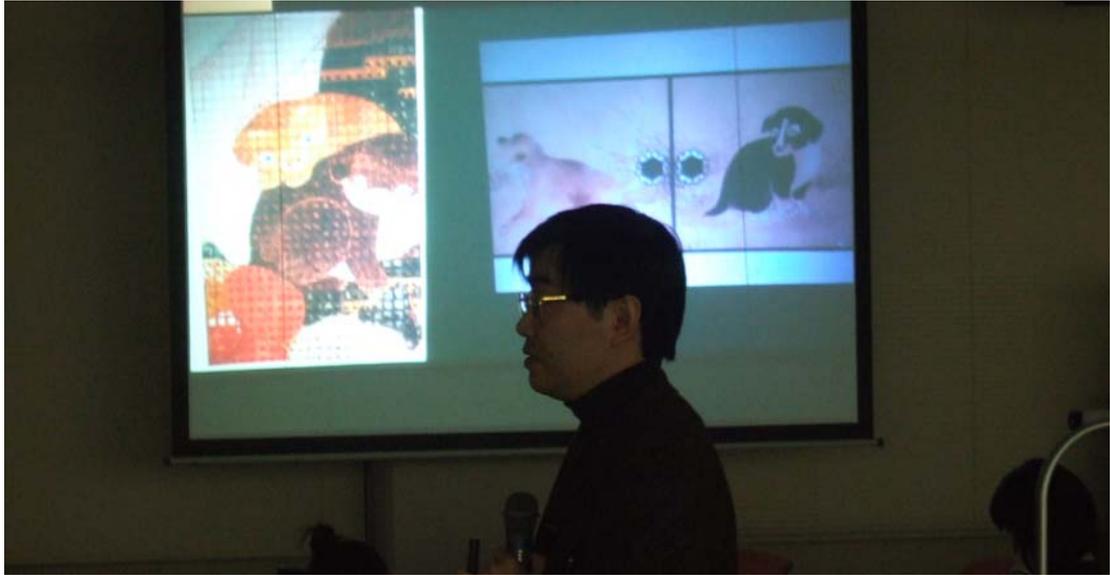
소상은 중국 호남성의 동정호와 그 남쪽에 있는 소수·상강 유역을 가리킨다. 중국 북송시대의 화가였던 송적(宋迪)이 회화의 주제로 이용한 소상팔경은, 그 후 기호화되어 그곳에서 일탈을 보게 되었다. 소상팔경도

는 한국 및 일본에서도 산수화의 중요한 주제로 이용되게 되는데, 전 시간의 동물화와 마찬가지로, 소상팔경의 주제는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갔다. 강의에서는 이같은 점들에 관해서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설명이 이루어졌다. (문책: 이케다)



소상팔경도를 가까이에서 감상

[강의와 실습 광경]



2 대의 슬라이드를 이용하여 설명



개



사향묘



테마강의를 위해 특별히 준비된 소상팔경도



그림에서 불만한 곳을 해설



해설을 들은 후, 소장팔경도를 구석구석까지 주의깊게 살펴봄



질의응답

커뮤니케이션 보드

질문: 수업에서 다룬 작품 중 한 점을 선택해, 이 작품이 수업 전과 후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수업과 같아도 괜찮고, 변화한 감상에 대해서라도 괜찮습니다.

takayuki said :

친자(親子) 고양이 그림에 대해서입니다만, 처음에는 단순히 「예쁜 그림」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고, 또 이 그림의 어디가 재미있는지 잘 몰랐었습니다만, 세부적인 꽃이나 털의 묘사, 배경의 고안, 나비의 장치 등 해설을 듣고는, 이렇게 볼 것이 많고 세심하게 고안된 그림이구나, 하며 보는 것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1년·이I)

요코 said :

모익의 사향묘(고양이와 나비 그림)에 관해서. 고양이 털의 질감을 내기 위한 붓의 정교함은 보고 알 수 있었지만, 종이 아닌 건, 그것도 뒤에서 채색한 것이라 듣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또 고양이의 시선을 이용해서 나비의 존재에 사람의 시선을 향하게 한다는 고안 역시 기예가 있어 굉장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대상에 따라 화구의 종류를 바꾸는 것에서도 구애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것도 없는 단지 자연의 풍경이었는데, 고양이와 나비에 장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자연의 풍경으로부터 계산된 회화의 표현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1년·문III)

Y.K. said :

모익의 萱草遊狗圖는, 처음에 봤을 때는 그저 귀여운 개의 그림이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 설마 상서로운 의미(남자아이 탄생)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떤 기분으로 이 그림을 보고 있었을까를 상상할 수 있었기에 재미있었습니다.

원양이나 복숭아 등, 훨씬 알기 쉬운 길상도안의 그림은 본 적이 있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그저 바라보고 있었을 뿐인 그림에도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문III)

M.O. said :

특정 한 작품이라고는 말하지 못하겠지만, 고양이와 나비란 화제(画題)에 대해서. 듣고 보니 자주 보는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까지는 그저 나비가 춤추고 고양이가 놀고 있는 한가로운 정경으로 밖에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수업을 듣고 각각에 상서로운 의미가 있다는 것, 또한 이러한 구도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천해 왔는가는 경위를 알고는, 회화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이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새삼스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그저 「아름답다」거나 「근사하다」로 끝나고 말았을 그림도, 숨겨진 의미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문III)

Veilchen said :

모익의 蜀葵遊猫圖에 대해서. 처음 보았을 때부터 퀄리티가 높은 데에는 놀랐으나, 터치가 털의 곁에 따라 휘어져 있는 것이라든가, 뒤에서 채색을 입혔다고 하는 정교한 기법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는 그 예술성에 두 손을 들었다.

특히 배경인 아욱의 확대화상. 나도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아아 배경에 이정도의 그려넣기라면 나도 하겠다, 라고 생각했더니만, 꽃잎 한 장이 3mm의 크기라는 것을 알고는 정말로 놀랐다.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크기에 뗏상도 빗나가지 않고, 농담도나 가장자리 손질등을 사용한, 공들인 채색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굉장히 기합을 넣은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화력(画力)이 다르다. 항복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구도의 응시법이나, 모티브의 의미를 듣자, 이것은 이미 오타쿠적인 해석의 세계로구나, 하고 생각했다(이상한 말이지만, 좋은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1년·이I)



호랑이

질문: 수업 내용과 실제로 소상팔경을 본 것을 바탕으로 「보는」 것과 「해석」 하는 것의 관계에 대해 논해 주십시오.

sn said :

「해석」 하는 것은 「보는」 것의 발전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것이란 그 장소에서 시각적으로 얻은 정보만으로 느끼거나 생각한 것인데 반해, 「해석」 하는 것에서는 시각적인 정보에 더하여 이제까지 축적되어 온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해 보다 깊이있는 고찰이 가능해진다.

소상팔경이 무엇을 그린 것인가를 아는 것이나, 같은 소상팔경이라도 남송화와 북송화의 분위기의 차이, 또 중국·조선·일본에서 제각각 어떻게 그려져 왔는가를 알고 난 뒤에 「보」 면, 그 그림이 그려진 당시의 배경이나, 그것이 지금 여기에 걸려지게 되기까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해석」 으로 이어져 간다.

회화는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는 사람을 만족시켜 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해석」 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또 다른 재미를 얻을 수 있음을 느꼈다. (2년·문Ⅲ)

Y.K. said :

수업을 듣기 전에 저는 소상팔경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듣고 나서는 「해석」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해석」 이란 그저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석」 하는 데에는 그 그림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에 기반해서 본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림이 그려진 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 됩니다. 단 「보는」 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시선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그리고 있을 터이므로, 당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 즐겁게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년·문Ⅲ)

Tjutju said :

회화를 볼 때, 화가가 의도한 것을 「보기」 위해서는 화가-혹은 의도된 감상자-와 같은 전제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 소상팔경처럼 그 전제지식이 회화가 그려진 환경 하에서는 당연한 것일수록 그러하다. 당연한 것들은 왕왕 생략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해석」 하지 않으면, 회화 본래의 의미에서 말하자면 「보아도 보이지 않」 게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지식을 얻으려고 하거나 해석하거나 하는데 열중해서 회화 그 자체를 망각하면 본말전도이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모르겠지만, 내 자신은 전람회 때 갈 때 종종 실물보다도 설명란에 주의를 빼앗기게 되곤 한다. 지식을 얻은 이후에, 한번 더 그림을 「보는」 것으로 자신이 도달한 내용을 체감하지 않으면 안된다. 「해석하는」 것도 원래는 회화를 즐기기 위한 것이니까.

이런 점에서 「해석」 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짓고 싶다. (1년·문Ⅰ)

미즈키 said :

이번에 실제로 그림을 보고, 솔직히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림 속의 비나 밤의 분위기에 마음을 빼앗겼고, 역사의 무게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가지 배경을 듣고 나서 바라보니 역시 아무것도 모른 채 보는 것과는 전혀 다름을 느꼈습니다. 이 그림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떤 시대에 그려졌는가를 아는 지식을 얻은 후에 그림을 보는, 즉 그림을 해석하고자 하면, 훨씬 깊이있게 그림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그림을 그저 보았을 때의 인스피레이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을 더더욱 알고 싶다고 생각해, 해석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문Ⅲ)



소상팔경도

정리

2008년 1월 28일 (월)
사이토우 마레시(齋藤 希史), 요코테 유타카(横手 裕)

수업내용

이번 수업은 「정리」, 이제까지 12 회의 강의를 돌아보고, 각자가 감상을 말했다. 자신이 배운 것, 흥미를 느낀 것, 그리고 수업에 대한 개선안 등등, 학생 한사람 한사람이 각각 생각하는 바가 있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본 테마강의가 시도한 「오감으로 배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물에 접해보는 것으로 전통문화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다」, 「실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기억에 남기 쉽다」 등등의 감상이 나왔고, 대개가 호평이었다. 그리고 「문화를 즐기는 데에는 배경지식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감상도 더해져, 체험을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식에의 욕구로도 이어졌던 듯 하다.

또한 「동아시아 전통문화」라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 문화에 있어서의 동아시아 유래의 요소 발견, 더하여 「"일본의 전통"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제기

등, 금후의 발전이 기대되는 발언도 있었다.

단, 「낮설은 테마에 대한 강의는 졸렸다」라는 솔직한 의견도 나왔다. 또 설비의 활용 불충분, 학생·TA 간 교류 등의 쌍방향형 커뮤니케이션의 부족 등, 반성점도 많다.

실물, 다른 시대 다른 장소의 사람들의 오감이 가득 차 있는 물건, 그것에 현대의 우리들이 오감으로 맞닿아 보고 거기에서 다양한 것들을 끄집어 내었던 테마강의도, 이번회는 여기서 종료된다. 본 강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 모두가 금후에 더더욱 발전할 것이 기대된다. (문책: 히라사와)

감상



· 일본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속에 중국이나 여타 아시아 나라들과의 관련성이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향도는 일본의 문화에 녹아 들어가 있지만, 향목은 동남아시아 등과의 교류가 있었기에 이곳으로 왔던 것입니다. 일본과 아시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번 수업을 통해 매우 잘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중국에 대해서 일본인이 만들어 낸 이미지는 실제와는 조금 다르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요리 수업에서 깊이 느낀 것인데, 「중국요리」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커뮤니케이션 보드에 썼던 것처럼 “불의 요리인” 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실제 중국요리라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 동아시아 문화라고 하면 친근한 느낌이 들어, 꽤 접했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수업을 들어 보니, 예를 들어 회화 수업에서는 수묵화에 관해서는 원래가 친숙했지만, 그 바탕이 되는 것을 여러가지로 들을 수 있어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의 깊은 의미 등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접해 보면서 여러모로 새로운 지식도 얻고 시야도 넓어졌다고 느꼈습니다. 단 KALS 교실에 대해서, 컴퓨터 등은 정말 최첨단이었지만,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이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 고등학교 때 중국을 여행하면서 웅대하다든가, 끝없이 이어진 눈을 「굉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래에도 중국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면 하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부의 동기부여, 무언가 지식을 얻고자 하는 동기부여는 역시 처음에는 동경 비슷한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중국 굉장하다」라는 최초의 감각적인 것에서부터, 중국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공부라도 반드시 처음에 동경 비슷한 것을 느껴서 입문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업에서 실물을 볼 수 있어서, 내 안에서 점점 고조되어 갈 수 있는, 동경의 재료와 같은, 그러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수업에서 가장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단, 주문이라고 한다면 교실에서의 수업이 졸음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 지역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만, 어느 쪽인가 하면 일본과 비슷한 느낌이어서 그다지 동아시아에는 흥미가 없이, 저는 역시 일본과 다른 유럽에 강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수업을 받아 보고 일본과 중국과 한국간에 다른 점을 발견한다는 것이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또 어제, 대하드라마를 보았는데, 향도가 나와서, 돌리는 동작 등이 있었는데 돌리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향을 맡을 때에는 이렇게 가지고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텔레비전을 볼 수 있어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 저는 예전부터 일본의 예능문화 등에 무척 흥미가 있어서 스스로 공부했었습니다만, 그 안에서 “전통”이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알고 싶어졌습니다. “일본의 전통”으로 불리고 있는 것 안에도 순수한 전통은 없고, 중국이나 다른 제외국의 영향이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문화 등도 여러 책을 읽어서 알아가려고 했는데 책으로는 제한된 분야밖에 알기가 어렵고, 실물을 볼 기회는 좀처럼 없습니다.

이번에 얻은 기초적인 여러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한번 더 “전통”이란 무엇일까, “일본의 전통”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배워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 중국에서는 여러 형식의 차가 나와서, 어떤 것은 일본에 건너와 다도로 발전해 오고, 어떤 것은 현재 중국에서 차의 형식으로 확립되어 번성하고 있고, 이렇게 전통문화라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점점 변화해 가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임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문화가 문화로써 지금부터 다시 이어져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러한 문화를 조금이나마 몸에 익혀서 변화시켜 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쌓지 않으면 안된다고 느꼈습니다.

수업에 관해서입니다만, 강의는 몇 사람인가가 지적했듯이, 너무나 강의답기만 해서 모처럼 좋은 슬라이드 등이 있는데도 계속 듣고만 있는 것으로는 아깝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보드를 보면, 모두 굉장히 좋은 것만을 써 놓았는데, 그와 같이 나중에 스스로가 정리해서 의견을 쓰고 교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듣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발언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원래 중국사에 흥미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이 수업을 들은 것도 있습니다만, 앞서 몇 분인가가 강의는 재미없었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입니다만, 저는 오히려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갑골문자·금석문 수업 등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해서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신 자료를 스스로 조작할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보통은 칠판에 파워포인트 등으로 베끼는데, 자신이 보고 싶은 세부를 볼 수 없거나, 자신이 보고 싶은 타이밍으로는 볼 수 없었거나 해서 상당히 불만스러웠습니다. 프린트로 받아도 너무 작아서 세부를 볼 수 없었던 적이 꽤 있었는데, 이 수업에서는 KALS의 특징을 살려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 수업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한 것은, 횡적인 연결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러 전문가 선생님 들께 의뢰한다는 형식에서 보아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지 모릅니다만, 예를 들어 문자와 서적이란 것은 같은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며, 차와 향도, 차와 음식이라는 것도 매우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관련성이 이번 강의에서는 그다지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유감입니다. 이러한 점들도 다룬다면, 아주 재미있지 않을까 라고 느꼈습니다.



· 일본문화가 중국문화 등 대륙의 문화와 연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역사 등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화의 연결성이란 것은 이렇게 역사가 있어서 이러한 과정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표현된다, 라는 식의 것이 아니라, 한 눈에 보고 느끼는 것이 문화의 연결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수업에서 목계(牧溪)의 그림을 보았을 때, 이건 중국사람이 그린 수묵화입니다만 뭔가 내 마음에 와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일본 문화와 중국 문화의 연결이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섯 가지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전통적인 문화를 소재로 한 것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문화」라고 하면 꽤 딱딱하다는 이미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수업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 참으로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앙케이트]

당일 참가자 18 명에게 각각의 질문에 하나씩 선택하도록 했다.

*아래의 표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재미있었던 테마, 배울 점이 많았던 테마, 한번 더 개최하기를 희망하는 테마를 의미한다. 1. 향도, 2. 문자, 3. 차, 4. 서적, 5. 요리, 6. 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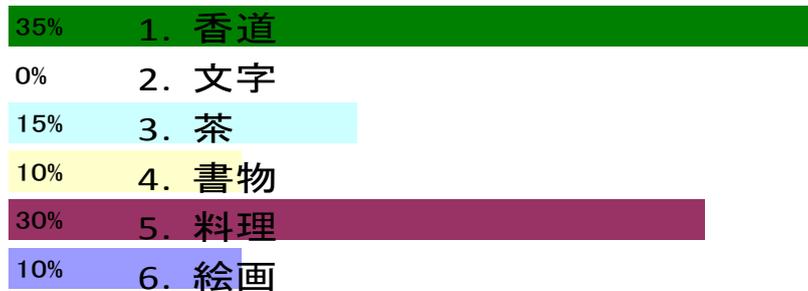
おもしろかったテーマ



勉強になったテーマ



もう一度開いてほしいテーマ



TA · RA 페이지

「전통」이란 무엇이나? 「전(伝)」이란 옮기는 것, 전하여 지속시키는 것이다. 「통(統)」이란 실의 꼬트머리, 시작이며 여기서부터 연결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즉, 「전통」이란, 실이 면면히 이어지듯이, 대대로 계승되어 이어져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통문화」, 문화가 「이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에 의해 이어져 가는 것일까? 생각건대 이는 감성의 계승에 의해서가 아닐까. 이번 강의에서는 선인들이 향기맡고 쓰고 마시고 읽고 먹고 보던 때에 맛보았을 감각을 체험해 왔는데, 생소할 것만 같던 사물에 자연스럽게 친근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야말로 옛 사람들과의 공감이며 시공을 초월한 이어짐이며, 문화의 전통이란 게 아닐까. 이번에 수업을 도우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생각하며 뜻깊은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수업이 이후에도 개설되기를 바란다. 원컨대 대대로 지속되어 전통의 수업이 되기를! (TA · 히라사와 아유무)

이번 테마강의를 돌이켜 보면, 강의내용도 그럴 만하지만, 방법상 새로운 시도가 강하게 인상에 남았다. 우선 인터넷상에 개설된 커뮤니케이션 보드는, 배움을 보다 깊이있는 것으로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달아오른 논의가 게시판을 난무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게시판을 매개로 한 사고의 공유가, 각 수강자들에게 새로운 사고를 자극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나 자신, 게시판을 읽음으로써 대단히 자극을 받았다. 또한 실습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전체적으로는 강의형식을 취하면서도 「오감으로 배우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다. 각각의 실습은 모두가 흥미로운 내용이었으며,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TA 의 커다란 특권이었다. 여러가지 면에서 충실을 기한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다. 사이트우 선생님, 요코테 선생님, 강사 선생님분들, 수강생 여러분들, EALAI 관계자 여러분들께 마음으로부터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다. (TA · 이케다 토모코)

「별은 별이라고 이름붙이는 순간, 빛을 발하면서 멀어져 간다」는 하이데거의 말이 있다. 강의 후 오오니시 선생님, 사이트우 선생님, 그리고 나 이렇게 셋이서 코마바 아래의 술집에서 학문의 존재방식에 대한 이야기에 이르렀을 때, 내가 문득 생각나서 말한 것이다. 스스로도 대단해 보이는 듯한 말을 해 놓고서, 그 당시에는 누구의 말인지 생각해 내지 못했다. 이 에피소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RA 라는 일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직접 이야기하며 배우는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다. 초대한 선생님들과의 교류회는 내가 연회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반드시 기획·실행했다. 내게 있어 「오감으로 배우는」 주된 장소는 KALS 도 일본관[和館]도 아닌 술집이었다. 후 지앤성씨를 중심으로 한 일본관에서의 국 파티도 즐거운 추억이다. 단, 테마강의로부터도 개인적으로는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참가한 여러 학생들이 일본은 동아시아 속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동아시아에 이웃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한 점이었다. 특별히 어느쪽이 맞다거나 좋다는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 전통문화가 빛을 발하면서 학생들로부터 멀어져가기 보다는, 애매한 부분을 담고 있거나 남겨두면서도 그것이 학생들 마음속 어딘가에 뿌리내려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자극적인 강의와 실습을 준비해 주신 강사 선생님들과 자유로이 일을 시켜 주신 카르마 선생님, 사이트우 선생님, 요코테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테마 강의에 출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들, 강의기록을 주로 담당해 주신 TA 이케다씨와 히라사와씨, 양질의 서포트를 해 주신 하마구찌씨와 조교 이시이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A · 하타나카 히로토)

도움주신 분들

■ 담당교수 Professors in Charge

사이토우 마레시 齋藤 希史 SAITO Mareshi

요코테 유타카 横手 裕 YOKOTE Yutaka

■ EALAI 특임조교 EALAI Research Associate

이시이 유미 石井 弓 ISHII Yumi

■ 테마강의 RA Research Assistant

하타나카 히로토 畑中 弘人 HATANAKA Hiroto

■ 테마강의 TA Teaching Assistants

이케다 토모코 池田 朋子 IKEDA Tomoko

히라사와 아유무 平澤 歩 HIRASAWA Ayumu

■ 자료집 편집 Editors

이케다 토모코 池田 朋子 IKEDA Tomoko

하타나카 히로토 畑中 弘人 HATANAKA Hiroto

히라사와 아유무 平澤 歩 HIRASAWA Ayumu

■ 영문 번역 English Translators

하타나카 히로토 畑中 弘人 HATANAKA Hiroto

스테판 세벨 Stefan SEBEL

■ 한국어 번역 Korean Translators

이수지 李穗枝 LEE Suji

마즈다 하루카 松田 春香 MATSUDA Haruka

■ 협력 Cooperation

하마구치 가즈에 浜口 一恵 HAMAGUCHI Kazue

2008 년 7 월 31 일 발행

도쿄대학

동아시아 리버럴 아트 이니셔티브 (EALAI)

+81-3-5465-8835 (TEL&FAX)

admin@ealai.c.u-tokyo.ac.jp

<http://www.ealai.c.u-tokyo.ac.jp/>